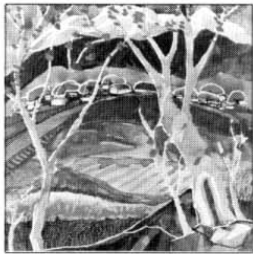


旂斯翼

第6號



橫城文化院



*** 표지설명 ***

새로워지는 마을에 시간의 변화가 깃들인다. 옛날의 작은 마을이 아직도 생각나 향수어린 착각속에 젖을 때가 있다.

현재의 발전이 좀더 향상되기를 기원하면서…….

題字：是江 韓明洙 書

旋斯夏

第6號

横城文化院

차 례

- 권 두 언
 - 횡성문화원장 한 중 희/ 9
- 서 시 이 연 승/ 10
- 논 단: 1990년 지방화 시대를 맞으며
 - 지방화시대의 문화원의 역할 김 승 기/ 11
 -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위한 횡성인의 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유 장 희/ 14
 - 지방자치제와 농협의 대응 농협조합장/ 18
 - 더불어 살자 부원장 김 정 기/ 27
 - 인간화 교육 횡성고등학교장/ 33

문 예

- 시
 - 송 어사매 조 상 현/ 36
- 시 조
 - 요즘에 피는꽃 곽 영 기/ 40
 - 고집쟁이 곽 영 기/ 41
 - 미친하늘 곽 영 기/ 42
- 시
 - 계촌별곡(Ⅰ) 김 성 수/ 43
 - 계촌별곡(Ⅱ) 김 성 수/ 45
 - 계촌별곡(Ⅲ) 김 성 수/ 46
 - 계촌별곡(Ⅳ) 김 성 수/ 48

• 수 톱	김 양 수 / 49
○ 수 필	
• 미 린	이 연 승 / 50
• 방울꽃	임 교 순 / 53
• 선산을 바라보며	최 성 침 / 56
• 사랑을 먹고사는 기관차	권 용 환 / 59
• 우리집	김 종 구 / 63
• 전통윤리의 현대적 이해	최 성 침 / 65
○ 건강상식	
• 간장과 우리건강	김 정 웅 / 68
○ 중국기행	
• 죽은 사람이 산사람을 살리는 나라 중국	유 장 희 / 72

학생문예

-89년 글짓기 대회 입상작-

• 들 꽃	우 천 중 3년	박 윤 희 / 81
• 산 길	현천국교 5년	김 의 주 / 82
• 웃음면 각시탈	황성여고 3년	이 금 숙 / 83
• 산 길	공근국교 6년	윤 신 영 / 84
• 들 꽃	대동여중 1년	이 화 순 / 85
• 탈 춤	둔 내 고 1년	송 금 자 / 86
• 꿀 벌	창립국교 6년	김 영 은 / 87
• 하늘과 구름	대동여중 1년	박 수 희 / 88
• 탈 춤	둔 내 고 2년	심 철 호 / 89
• 진달래	황성국교 5년	정 소 현 / 90

• 슬픈봄의 소나타	공 근 중 3년	권 희 순/ 92
• 마 중	황성여고 2년	최 혜 경/ 95
• 진달래 꽃피는 고향	황성국교 5년	정 주 화/ 98
• 우리의 길	둔 내 중 2년	최 수 미/ 99
• 화려한 외출	갑 천 고 2년	정 명 희/101
• 도시 락	수백국교 6년	이 정 은/103
• 어느봄날 유난히도 외로웠던 꽃산	대동여중 3년	한 지 혜/105
• 남아선호사상에서 느낀일	황성여고 1년	김 남 희/108
• 사적지 순례단에 참가하여	황성여고 3년	김 원 춘/111

특 집

• 황성지방에 구전되는 전래동요 연구	정 재 영/117
○ 문화원 행사	사무국장 한 창 일/145

부 록

○ 황성의 전래동요	149
○ 채집 및 정리	정 재 영/151
○ 임원명단	179
○ 편집후기	180

화보



문화행사 입상자 사적지 순례차 독립기념관 방문기념



문화행사 입상자 사적지 순례차 현충사 방문기념

화 보



청소년 문화강좌에서 경로사상을 강의하는 김정기부원장



청소년 문화강좌에서 글짓기 이론과 실기를 강의하는 이연승 장학사

화 보



효행학생 표창식에서 시상하는 김정기 부원장



효행학생 표창식에서 효행학생 공적사항을 발표하는 한창일 사무국장

화 보



여성교양강좌에서 건강소비생활을 강의하는 김정기 부원장



여성교양강좌에서 효생활과 자녀교육문제를 강의하는 한창일 강사

2000年代를 맞기 위한 地方文化의 活性化



文化院長 韓重熙

20世紀를 마무리 짓는 1990年代가 始作되었습니다. 2000年代를 맞기 위한 世紀的
몸부림이 世界 곳곳에서 거세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政治的으로는 東歐를 비롯한 世界 각처에서 民主化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經濟的
으로는 Block 經濟가 地域中心으로 強化되고 있으며, 社會的으로는 人類의 生存을
위해 弊弊를 없애려는 끈질긴 노력이, 그리고 文化的으로는 人間 本然의 모습을 찾
아보려는 實存의文化가 大衆中心으로 展開되고 있습니다.

國內的으로는 民主化의 政治的變化로 地方自治時代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따
라 우리 文化界도 새로운 地方文化時代를 맞게 되었으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이러한 時代를 맞기 위한 우리의 情神과 價値觀의
確立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於斯買 第六號에서는 地方自治를 위한 우리 橫城人의
意識과 各分野의 問題點을 特輯으로 다루어 보았고 다음號에서도 계속 이 問題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모처럼 맞은 地方文化 活性化의 契機를 놓치지 말고 우리 橫城의 文化 發展에 모
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야의 종소리

이 연 승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고

올해가 작년되고

내년이 올해가 되는 소리.

한 해를

돌아 보고

소망을

빌어보는 시각.

고향없는 이들에겐

단장의 메아리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문화원의 역할

김 승 기

마치 한세대라도 살아 온듯 많은 충격과 변화의 격랑속의 80년대를 보내고 이제 구두선처럼 외쳐대던 “대망의 2천년대”를 준비하는 시대라고 일컫는 1990년대를 맞았다.

우리가 체험한 어둠의 긴터널 80년대에 있어서 그래도 빛이 있었다면, 자율(자유)의 가능성 발견과 지방화(지방자치)의 가시화 그리고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점을 묵과 할 수 없다.

알맹이야 어떠했던 향토문화제가 매년 해거름없이 열리고 것처럼 동한시했던 전통문화와 향토사에 대한 재발견에 많은 정열을 쏟았다던가. 그 허약해 보이는 자생문화예술 단체에서 각종 문예행사를 개최해 온 점등이라던가, 간판만 걸려있던 문화원이 그런대로 황폐화한 지방문화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해 왔음에는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졸속과 오류등 온갖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문제삼기에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터가 뿌리 내리기에는 토양이 너무 척박했고 지나칠 정도의 무관심과 소외의 그늘아래서 쏟아온 정열과 정성에 비하면 크게 탓할 수 없는 심정이다.

아무튼 이제 그토록 갈망해온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지방문화에 대한 인식과 시각에 많은 변화가 온 이때에 문화원과 지방문화예술인의 역할은 더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금명간 실시가 확실히 된 지방자치는 그 근간이 지방(향토)의 전통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방민이 결속한 가운데서만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문화원과 문화인이 향토애를 일깨우고 전통문화(역사의식)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그

바탕위에 전 주민이 결속하여 하나로 일치되도록 하는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원이 더 조직적이고 더 활동적이어야 하며 문예인들은 무관심 일변도의 주민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일깨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더 많은 후원자를 확보하는 일 역시 시급한 문제로 보다 넓게 문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필자도 한때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바 있고 또 몇가지 작업에 참여한바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오류와 미흡한,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채 묻혀 있는 많은 향토사를 찾아 그것을 재정립하고 모든 향토인의 긍지로 삼도록하여 그로 하여금 애항심을 일깨우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향토사의 집대성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문화공간의 확충이다. 지방민의 문화사랑방화 할 공간이 필요하다. 고도성장파 산업화 사회가 이루어낸 술한 향락의 숲속에서 문화공간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부담없이 들리고 즐길수 있는 그런 장소는 군민의 정서순화는 물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연극 공연마당하나 음악들을 장소하나 책읽을 책상하나 그보다 거닐며 사색할 거리 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의 현실은 비탄스러울 정도가 아닌가! 우리 모두 자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는 농촌문화의 피폐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한시 해서는 안된다. 필자가 2년여에 걸쳐 농촌과 농민과 호흡하면서 느꼈던 것중 가장 큰 아픔이었다면 너무 삭막하고 살벌한 풍경 그것이었다.

그것은 비단 침체된 농촌 경제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등 농촌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농민들에 있어서의 생존이외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부재 바로 그것이었다는 점이다. 하루종일 퇴약밭에서 그을리고 해떨어지면 대하는 것이 오로지 T.V란 저급 또는 비현실적(농민의 눈에)인 현란한 대중문화가 농민들이 떠나기를 재촉하는것처럼 야속하기 조차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이들과 차마 고향과 흙을 못버리는 농부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 함께 사는 아낙네들, 진정 그들을 위한 농촌문화는 정녕 없는 것일까.

이자를 탕감하고 싼값에 농지를 구입해 주고 길 닦고 가로등 켜주고 농기계 사주고 그것들이 진정코 농민의 정착의지를 심어주는 것일까.

우리 모두 문화를 아낀다는 사람들이 함께 자성하고 또 무언가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보다 많은 출판사업이다. 문화원이 주가 되어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태기문화”류 같은 매체를 통하여 전통문화나 각종 문화소식은 물론 향토의 이런 저런 얘기 등 주민의 관심사를 함께 토론하는 광장역할을 하도록 하여 주민을 선도하는 기능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무튼 문화원이 새시대에 보다 주민이 풍부하고 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이끄는 건인차 역할을 기대하면서 문화원의 노력에 갈채를 보낸다.



地方自治時代를 맞기 위한 橫城人의 意識 무엇이 問題인가?



柳 章 熙

우리는 지금 民主政治의 根本이라 할 수 있는 地方自治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지방자치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政策이 수립되고 실천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先決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先決條件은 주민들의 意識이 向上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식의 변화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함은 마치 모래위에 城을 쌓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意識構造중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향상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反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장에서 태어나 자라고, 30여년의 敎職生活을 한 필자로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점을 客觀的으로 지적하기란 매우 어렵고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近視의 일수도 있고 偏見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방진 말이라고 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반성해 보자는 순수한 뜻에서 몇가지를 밝혀보려하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 主體性的의 결어

필자는 「橫城각쟁이」란 글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결코 욕이 아니라 日帝의 商權 독점에 대항했던 橫城人의 강한 主體性을 못마땅하게 여긴 日人들이

만들어 낸 별명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강한 주체성은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原州가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生活圈이 하나로 되면서 우리가 橫城사람인지 原州사람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도, 행정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모두 예측되어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劃一的 行政에 기인한다고 보겠으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우리에게 강한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排他性을 갖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은 본 받되 완전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적어도 6. 25이전의 번영 (원주, 홍천 등 인근지역에 대비한 수준)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행정하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상인, 교육자 그리고 특히 유력인사들의 뼈를 깎는 반성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휴지 한통도 원주에서 사고, 식사 한끼도 그곳에 가서 하는 우리의 의식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지, 학생들을 뺏기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체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 公益優先의 精神 결어

現代社會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가 利己主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이 우리에게겐 부족합니다.

길하나 내는것, 건물하나 짓는 것, 공공기관의 이익이나 자기 소속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한 예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해서 정책기관의 의사에 손비비고 따라간 인사들은 안 계신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간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은 없는지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도층에 계시는 분일수록 더욱 요구되는 정신입니다.

○ 責任意識의 결여

責任意識은 現實的 自覺을 바탕으로 생겨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사람은 어떤 일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기관장은 그로서의 책임이 있고, 예하 사람들은 그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지역 사람들은 책임회피를 잘합니다. 잘된 것은 모두 자기의 공이고 잘못된 것은 모두 아랫사람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주민들도 모든 잘못을 행정기관이나 해당기관에 돌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행사때면 유난히 앞 좌석에 앉지 못해 안달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그 자리에 앉을 책임을 다하려 최선을 경주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創造的 思考의 必要

무슨 행사나 일이 있으면 으레 前例를 따집니다. 먼저번에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데 없이 일을 벌였다 잘못되면 욕을 먹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새로운 일은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라도 탓하고 욕하기 전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추진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장을 중심으로한 공무원이나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所信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정책을 담당한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폭넓은 意見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해관계를 떠난 客觀的位置에 있는 사람들과 젊은세대들의 의견을 모을 制度的裝置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자세에서 벗어나 批判的 視覺을 가진 분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外地에 나가 있는 이 지역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 易地思之의 態度 必要

가끔 회의에 나가보면 나의 주장만이 옳고 나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남을 공격하기 위해 회의에 온듯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會議란 토론을 통하여 가장 理想의 方案을 찾으려는데 目的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자기 意見만이 진리인듯 하다보니 소리만 높고 토론은 무의미하게 되고 맙니다. 한발짝 물러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對話하며 양보하여 나간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易之思之입니다. 앞으로 각종 議會가 구성되고 會議가 열리게 되므로 이 易之思之의 태도는 정말로 매우 필요한 태도라 하겠습니까.

결국 地方自治는 住民의 意識水準에 의해 그 成敗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극히 普遍的인 이야기이지만 조금은 批判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왜 말씀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우리의 時代를 우리의 힘으로 멋지게 이끌어 가야할 우리의 使命이 있기 때문입니다.

(文化院現事 統一專門委員)

地方自治制와 農協의 對應

金 勳 東

(農協中央會 橫城郡 支部長)

1. 서론

지방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의 지역내 문제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자율과 자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의회의원선거가 올해로 예정되자 지방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선거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의원지방생인 지역유지들은 낮익히기 작전에 들어갔고 정치지방생들이 농수, 축협 등 이익단체장선거를 기반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우리는 각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우선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 할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그만큼 권익이 신장된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법에 정해진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 입후보 할수 있다.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청원권을 활용,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손쉽게 빨리 구제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로 공공시설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원, 학교, 도서관, 병원등 공공시설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또 번거롭던 각종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돼 지방자치제의 이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은 자연히 선거를 의식 주민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민원처리담당자도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농민들의 조직인 농협은 이제 증산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니라 농민의 자율적인 시장참여와 시장대응력,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농민들 스스로의 이익확보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업은 더이상 생산이나 생활주식(主食)이 아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농업경제의 시장화의 진행이 농가간, 농업지역간의 시장경쟁을 촉발시키게 된다. 경쟁적 농업생산활동은 농업생산의 지역특화와 전문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결국은 농업생산의 지역적 상대성을 가져온다.

이것은 농가문제의 지역적 상대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농업지역 모든 농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동질성이란 생각할 수도 없게 된다.

「주곡증산」과 같이 전 농촌, 전 농민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이해관계는 이제 더 이상 찾기가 어렵게 된다. 심지어는 쌀에 대한 경제적 이해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농협간에도 서로가 자기지역의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농협은 자기책임하에서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만 하고 농협의 사업도 지역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협에 따라 자율화 되어야 한다. 농협운영이 합리화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협은 그 본질적 성격이 경제사업단체이지 정치단체는 아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 직업적 전문화와 분업에 따른 다양한 사회집단과 계층이 형성되고 그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확보를 위해서 자기집단의 이익을 스스로 사회에 대변하기 위한 활동은 자연스러운 사회질서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집단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불가피하다. 현대사회는 그만큼 「공동사회」가 아닌 「이익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농민단체인 농협이 자율적으로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하고 사회적으로도 책임있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

는 것은 다른 사회집단들의 활동과 비교할때 「기회와 참여의 형평성」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행정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지방화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회운영방식 행정 운영방식 또는 정치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방화는 결국 농협운영방식에 있어서의 지방화 바꾸어 말하면 법인격인 농협과 그 연합체적인 성격의 농협중앙회와의 새로운 역할분담과 권한의 조정을 통한 농협의 기능강화를 의미한다. 지역적으로 특성을 지닌 자기 지역의 농가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2. 농협의 이념

농협은 1961년 8월 15일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농협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이나 국민들 중에는 농협을 은행이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협동 조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자본의 힘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져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농협운동은 독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목적을 설정하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자조·자립·협동」의 3대 이념을 가지고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협운동은 국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원조나 지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농민

조합원이 단결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있는 것이므로 「자립」을 농협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든 우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은 조합원이 되면 농협으로 부터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협은 이러한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자기만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농협운동은 실패하고 말것이다. 조합원간에 서로 돕고 힘을 합치는 데서 조합원 각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농협운동은 「협동」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 돕는다는 것은 우선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돕는다는 것은 자조의 바탕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자조」가 농협이념의 하나가 된 이유다.

세계협동조합운동의 표어인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는 농협의 이념인 「자조·자립·협동」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농협은 이를 조직하는 농민이 출자자이며 농협의 운영자인 동시에 사업의 이용자인 것을 조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인 것이다.

농협에 가입한다는 것은 농민이 생산과 생활에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부딪치는 장애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공동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합원간에 상부상조하는 동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한 농협의 사업을 전이용하는 등의 협동활동 실천은 조합원의 책임인 것이다. 즉 농협활동 실천은 조합원의 책임인 것이다. 즉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용하는것이 아니고 조합원 상호간에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리점이 생긴다는 믿음때문에 이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조합원은 협동운동의 주인이지 결코 고객은 아니라는 것이다.

3. 지방자치제와 농협조합장의 역할

지금 우리 농촌에는 민주농협과 민주농촌의 새로운 기수가 될 농협조합장들이 농민들의 전례없는 높은 투표율에 의해 직접선출되고 있다.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들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크다.

대규모의 상업농이 이뤄지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등지의 농협조직은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전문화되고 있다.

예컨대 과실류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협의 조합장은 과실시장에 관한 전문가이고 신용조합의 장은 금융업에 관한 전문가이며 농정을 전담하는 조직단체의 장은 정부시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농들이 한 고장에 모여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농촌사회에 있어서는 농협은 종합농협으로 되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농협조합장은 지역농민들을 농협운동에 참여케 하는 농촌운동가라야하고, 농협의 사업을 계속 늘리는 경영인이라야 하고 또한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대변해주는 농정활동가라야 한다. 따라서 종합농협의 조합장은 만능선수라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면 구미지역의 농협 운동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정경분리가 되어 왔지만 우리의 경우는 정경분리를 할수 없는 실정때문에 조합장의 역할이 그 만큼 다양해진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우리나라가 국제화되고 개방화의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농협조합장의 역할은 갑작스럽게 커져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합장들의 농정활동가로서의 역할과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국내적으로는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농산물 수출국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에 젖어들고 있다. 농촌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합장들의 농정활동에 기대하는 바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런데 농촌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

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합장들이 농정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들의 농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조사연구와 자료등을 제공해 줄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조합장 스스로가 지역단위의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자주 개최하고 농정에 대한 자기의견의 타당성을 위해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다른 또 하나의 과제는 우리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는 대신 자율화가 늘어남에 따라 농협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체들이 급속도로 늘어날것이기 때문에 조합장들의 경영자로서의 역량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보았을때 오늘의 종합농협은 조합장 20여명의 직원에 의해 연간 약 1백 50억원 상당의 각종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곧 조합장들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체의 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지난날의 농협은 농촌지역에서는 독점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해 왔으나 지금부터는 더 심한 경쟁속에서 사업을 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경영자로서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때가 되어가고 있다. 농민조합원을 위해 최대한의 봉사할 하는 조합이 되게 하겠다는 조합장들의 당선소감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조합의 경영이 잘 되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것이지 조합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조합원에게 봉사할 힘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종합농협의 조합장은 만능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만능선수도 때에 따라 특히 중요한 종목이 있게 되는 것과도 같이 오늘의 종합 농협의 조합장이 해야할 여러가지 역할 중 농정활동의 역할과 경영자로서의 역할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보아서는 조합장들이 모두 투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농촌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해 볼때 투사가 많다고 그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투지를 가진 경영자들이 많

아저야 한다.

4. 농협임원의 지방의원 겸직

서론에서 언급된것과 같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명예적인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농협의 임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것으로 농협의 임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농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농협은 정부의 투자기관이 아님에도 그와 동일한 차원에서 임원겸직을 규제하고 있음은 불합리하다. 정부기관은 국민을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정부에서 대부분 출자를 하고 그 경영의 책임도 정부가 지고 정부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농협은 협동조합의 이념을 구현하는 농민의 자주적단체로서 스스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조성하고 농민조합원의 편익을 위하여 일반경제단체와 같이 자유롭게 각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적(私的)단체이므로 의원으로서의 공정성유지의 측면에서 볼때 농협과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다르다.

다른 유사단체 즉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업연초생산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은 지방의회의원 진출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 수, 축협의 임직원을 금지 하고 있는것은 객관적으로 형평에 위배된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는 농협임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에서도 그러한 제한은 없다.

현행 정당법상 농협의 임직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농협법개정에 의하여 농협의 임직원은 선거직공무원의 겸직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에서만 지방의회의원 진출을 금하는 것은 농협법과 정당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농촌의 경우 주된 산업이 농업이고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므로 농민의 지도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조합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서 농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는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즉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외소득의 육성, 농가부업의 장려,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조합임원의 지방의회진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증진을 도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이고 상근직(常勤職)이 아니므로 그 지역의 중추기관이라 할수 있는 농, 수, 축협등 농어민단체의 임원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빈번할것인바 그 임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막아버린다면 지방의회의원에게 향후 커다란 불만요인이 된다.

5. 결론

농협이 지도, 구매, 판매, 신용, 공제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 규칙, 또는 규제등을 제거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신설함으로써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한편 일반 국민들의 지지 또는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농민의 이익집단으로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내실을 기하여 농민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정활동을 한다.

농민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농협의 조직, 사업, 목적은 농업정책 여하에 따라 좌우될 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 정부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농협의 목적달성을 위해 펼치는 농정활동은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여건속에서 농협이 농업발전과 경제적 약자인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농민조합원의 신뢰 및 지지기반을 확고히 얻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바람직한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적어도 농업을 타산업과 균형을 맞출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 농기위한 농정활

동은 더욱 더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농촌에서는 끊임없는 농산물가격 지지요구, 농민노후보장, 농약피해보상, 이농(離農)현상, 농촌환경개선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농민들의 지위향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수입받는 농협의 목소리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농민조합원에게 울지도 모를 불이익을 배제하고 농민권익을 위해 농민대표인 농협의 임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관철시켜야 한다.

각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타산업에 비해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농산물 수입압력등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확보하고 농협의 사업영역 확대에 타산업에 대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시책에 대해서만 해오던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침으로서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결과를 획득하여야겠다.

지방자치체가 실시될 경우 지방의 예산편성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져 농협의 사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됨으로서 지역단위로 조직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여건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단위 농정활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농민조합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 해결함으로써 농협에 대한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고 농협과 조합원이 서로 신뢰의 바탕위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농협상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더불어 살자

副院長 金鼎基

神은 絶對的인 存在이지만 人間은 相對的인 存在이다. 때문에 神은 홀로 存在가 可能하지만 人間은 홀로 서지 못하고 共存하고 共生하고 共活해야 眞理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人間은 가끔 힘으로 이 眞理를 無視하고 自己만의 主張과 생각을 固執하고 反對者를 蔑視하고 甚한 境遇 相對者의 生存을 빼앗아 버리는 愚를 犯하는 例가 종종 있어왔다. 勿論 歷史는 이를 容納치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准엄한 審判을 내려 敎訓을 주어왔지만…….

第5共和國때에도 총이나 칼을 가지고 政權이 創出되다 보니 反對者들을 公職에서 몰아내고 또 가두고 거리로 쫓아져 나가 거리의 學生으로 거리의 勞動者로 거리의 文人으로 거리의 知識人으로 敎訓을 받들어 受領했다.

이제 6共和國에 들어서서는 이들을 收容하고 和음을 다지자고 民主化를 宣言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慾求가 너무 거세고 極熱해져서 2年余間 혼란하고 安定하지 못하는 혼미가 거듭돼 온 實定이다. 學生과 教授 使用者와 勤勞者 그리고 與黨과 野黨 이런 現狀은 各界各層에서 發生 수출은 줄고 나라살림은 근심스러우며 物價도 不安定하여 모든面에서 不安하다. 이제는 「나와 네」가 아닌 우리로서 共存, 共生, 共榮, 共活의 더불어 사는길만이 살길임을 깨달아야 할때다.

(1) 民主化의 길

民主化의 길은 나의 利益을 피하면서 相對方인 남에게 害를 주지않는것이며 短期가 아니고 長期的으로 참으면서 平和스럽게 競争해 나가는 길이다.

우리국민들은 50~60年代에 하도 못살아서 「우선 부자부터!」라는 操急性이었다. 여기에서 「얼른 哲學」이라는 單語가 나오기까지 한다. 이는 비단 개인뿐 아니라 社會團體 國家機關 甚至於는 教育分野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70年代와 80年代에 와서는 우선 가난은 免하는 結果가 나왔지만 시행착오가 많이 났다. 地下鐵開通을 앞당기다 보니 지하철 바닥에 물이 새어나오고 臥牛아파트의 朋懷獨立記念館의 불탑등의 不詳事가 발생했다. 世上에는 서둘러서 되는 일이 있기도하고 서둘러서는 絶對로 안되는 일이 있다. 얘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個月이 돼야 태어날수 있다. 넓은 눈을 갈려면 경운기를 빨리 몰아야 하고 트랙타로 쉬지 않고 갈면 되고 집도 조금 빨리 도로포장도 工期를 앞당길수 있겠으나 목숨이 있는 生物은 絶對로 서둘러서는 失敗한다는 眞理를 깨달아야 한다.

勞働者들의 賃金を 올려주어야 食口들을 먹여 살릴수 있다. 使用者는 企業이 살아남을수 있는 限度內에서 賃金を 올려줌이 도리다. 그러나 양쪽 主張이 限界를 벗어나면 企業은 쓰러지고 勤勞者는 職場을 잃어버려 失業者가 된다.

企業이 쓸어지지 않고 利潤이 생겨 노임을 더 올려줄수 있도록 참고 키울수 있는 長期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人間的 教育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權威主義나 獨裁主義 밑에서 잘 못 길들여진 人間일지라도 다시 이를 바로 잡는데는 오랜 期間이 바로잡는 기다림이 必要하다. 벼는 심어서 5, 6개월이 지나 싹이 나오고 나무는 5, 60년 자라야 材木감이 되는 巨木이 된다. 사람은 2, 30年間 바르고 옳게 길러야 人材가 된다.

훌륭한 大學에 入學시킬수 있으려면 高等學校 3年間的 刻苦가 必要하며, 高교의 成績을 높이려면 中學校 生活이 教師 父母 學校의 원만한 和合과 노력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中學校는 국민학교때 工夫하는 習慣을 길러줘야 하며 幼稚園이나 幼兒院의 性品養成 教育이 前提됨을 알아야 한다.

入試制度改革이나 教科內容構成도 長期의인 研究를 거쳐서 100年 200年の 教育政

策을 수립함이 옳다.

「기다릴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民主主義는 찾아오기 어렵다」는 어느분의 말은 옳다. 아무리 自己主張이 옳아해도 適當한 順序 節次 方法 課程을 밟으면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면서 順理에 따라 主張을 관찰시켜야지 當場해내라고 우격다짐으로 덤벼든다면 충돌, 갈등, 차질만 結果할뿐이다.

民主主義는 進化를 原則으로 하며 革命을 原則으로 하지 않는다. 進化는 기다려야 하는 길이고, 革命은 우격다짐으로 부수고라도 밀어부치는 길이다. 性急하게 곧 自己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民主라는 이름 아래 實은 民主를 默殺하는 사람들도 많다. 短期性向으로는 民主主義는 기대하기 어렵다.

불란서에는 100年 200年 묵은 포도주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必要한 마음은 지금도 포도주를 술통에 빚어 넣으면서 「이것은 100年後에 딸것」 「이것은 200年 후에 딸것」이라는 병 딱지를 부치고 있다는 불란서의 어떤 양조자의 마음을 갖는것이다. 100年後에 自己가 마실것도 아니고 自己가 팔아서 돈을 벌어 호강할것도 아닌것을 그 씨를 뿌리는 마음이 民主主義를 가꾸는 마음이다.

(2) 地方化 民主主義와 軌道修正

87년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時局 춤을 추었던 李愛珠 서울大 교수는 民衆들에게 그춤이 「제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춤대신 傳統춤을 추고 있으며 民族劇 한 마당에서 마당극 運動을 펼치던 柳寅澤氏는 민중예술의 限界를 느끼고 이제는 영화계에서 새로 大衆예술의 本質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民主化 運動에 늘 몸으로 부딪쳤던 詩人 高銀氏가 時代의 變化속에 自己整理를 시도하고 있으며 禁止와 저항의 이미지로 70年代 大學街 노래文化를 주도했던 金敏基氏는 오랜 沈默을 깨고 和解와 統合의 겨레노래 運動을 펴고 있다. 過去 民衆藝術운동이 암울했던 우리 歷史의 한 時代에 태어나 民族의 고난과 고통을 형상화하며 뚜렷한 社會文化的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알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속에서 自己變身을 꾀하고

있는 이들의 몸부림에 사회적 注意를 환기하고 싶다. 이분들의 變貌에는 까닭이 있으리라 믿는다. 民衆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나머지 계급주의 예술의 限界性을 노출하고 심지어 운동권, 혁명세력의 도구적 예술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의혹속에 예술의 質이나 大衆化실태문제가 오히려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예술성의 전환은 미움대신에 和음을 죽을 판 대신 살 춤판으로 大衆들을 이끌기에 앞서 겸허한 자세로 大衆을 배우겠다는 點등이 특기할만하다.

最高의 藝術家들마저 軌를 달리하는 오늘에 올해부터 地方化時代를 맞아 地方民主化를 다루어본다.

政黨性的 考慮이다. 地方議會와 地方團體長을 뽑아냄에 있어 政黨性을 지나쳐 強調한 나머지 中央의 國회를 지방에 옮겨 놓은것 같은 현상은 좋지않다.

日本에서 地方議會 의원을 뽑을 때 政黨性을 보고 선출한 결과 地方의 啓發이나 發展은 뒷전으로 물리고 黨利 黨略 으로 싸움질을 하여 失望이 컸다. 10年余가 지나자 후보자의 能力과 愛鄉心, 公正性위주의 代表選出로 바뀌어 地方發展에 기여하게 定着했다.

學緣이나 血緣 地緣의 考慮…….

우리에겐 남과 對話하고,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과 철충하고 타협하는 버릇이 적다. 그러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덕목으로 되어있지가 않다. 도리어 그 보다는 지조 節介 不堀 鮮明 初志一貫이 따라야 할 德目이다. 우리는 歷史에서 麻衣太子 鄭夢周 死六臣등 節介의 人物을 배우고 따르라고 배웠다. 남을 理解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과 妥協하면 도리어 변절 변심 배신 기회주의 攄대없는 쓸개빠진 「사꾸라」로 취급 받았다. 그래서 政治에서는 선명을 요구하고 학원분쟁에서는 결사 물러서지 않는다 가 德目이고 노동쟁의에서도 절대 물러서서 양보하지 않는다가 깃발로 등장한다. 우리 李朝歷史에서 丙子胡亂때 明나라와의 義理를 생각하여 淸을 對敵해 싸우자는 派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親淸하자는 派가 싸웠다. 名分論에서는 싸우자는 派가 得勢해서 戰鬥했으나 敗戰으로 國土는 유린되고 國民

은 전란에 시달렸다. 이런 敎訓에서 살피건데 江原道 知事는 江原道 道出身이어야 된다는 式의 생각 가능하면 公務員 企業人 教授도 同鄉人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前提된다면 地域의 朋堂化 鄉堂化 地域感情의 強化 격화를 의미하고 同時에 퇴화를 의미하게 된다.

血緣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다만 여기서 같은 값이면…… 卽 能力도 열성도 愛鄉心도 비슷할 진대하면 몰라도…….

본래 對話란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맛장구치며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간담이고 환답이지 對話는 아니다. 對話란 그야말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주고 받음을 의미한다. 孔子는 말하기를 「小人은 同하지만 不和하고 君子는 和하지만 不同하다.」는 말과 관계된다. 의견은 비록 같지 않으면서도 和하는 길이 民主고 그 方法이 對話다.

맺음말(能力과 平等)

自由가 前提된 民主主義는 能力을 中心으로 競爭으로 發展해왔다. 그래서 市場經濟와 開放이 우선한다. 反對로 共產主義理念은 平等主義이다. 요즈음 東歐社會主義는 이미 經濟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로 그리고 나라를 전락시켰기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個人의 私有나 市場 自由經濟 導入의 社會로 指向하면서 路線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우리가 民主化를 부르짖으면서 깊이 생각할 문제는 平等문제이다. 發展의 過程에서도 할일이 많다. 그리고 해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能力 實力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이 社會적으로 出世하고 득세하는 能力主義風土가 造成되었고 그래서 이만큼 잘살게 됐다.

그러나 能力과 實力爲主의 方法만 重視하다가 平等이 짓밟히고 뒷전에서 눈물 흘리는 階層이 절반을 더 차지한다면 누리고 즐기기의 유산을 後世에게 넘겨 줄수 있을까? 잘사는 企業家와 勤勞者가 함께 잘살려면 나누어 배풀어야 하지 않을까? 工夫 많은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平等을 누리려면 앞에서 이끌어주고 달

래주는 보살핌이 必要하다. 能力있는 층의 子女들에게 510만원 심지어 수 100만원
씩의 과외비를 지출하면서 내 아들딸만 工夫 잘시킨다면 그렇지 못한 계층의 子女
들이 많아지면서 不平과 不滿이 쌓여서 現在의 幸福을 송두리째 앗아가지 말라는
法은 없다. 所有의 개념에서 벗어나 法頂스님이 말한 亨有의 생각으로 바꾸어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오손 도손 누리고 베풀면서 나보다 못한 이웃 不遇한
이웃을 언제나 잊지 않는 社會가 우리가 指向할 社會같다.



人間化 教育

橫城高等學校長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가발전에 가장 근원적인 기여를 해왔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양성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로서의 번영을 함께 생각하는 민주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공헌한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教育現實을 教育不在니 非教育이니 하면서 이제까지 教育이 공헌해온 것은 간과하고 社會의 모든 병리현상이 學校教育의 책임인양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아마도 教育이 實用的인 價値에만 치중하다보니 실용적인 목적의 달성은 어느정도 이루어졌겠지만 教育이 본래 지향하는바 全人教育, 즉 人間化 教育에 대한 실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교육이란 본래 인간적인 현상이며,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식, 기술훈련보다 어떤 인간을 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인간을 기르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교육이며, 앞으로 인간화 교육을 위해 지향해야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제언코저 한다.

우리의 教育이 길러야할 바람직한 인간이란

첫째로, 민주적 가치관이 확립된 인간이다.

종래 우리의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관념과 이상만을 주로 가르치고,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어떻게 자라야하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떠한 현실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어야하고 오늘날의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민주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다. 특히 지식편중에 치우쳐 왔고 과도한 경쟁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정력과 시간을 상급학교 입시준비에

바쳐왔으며 교과목표의 정의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道德的 決定能力과 價値觀의 확고한 인간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자유와 책임을 바로알고 생활하는 인간이다. 고유한 존재로서의 개인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며, 집단으로서의 사회공동체가 민주적인 규약을 이루어 평화롭게 사는 인간이다.

인간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자율성은 사회적인 책임을 포함하는 의미로서만 교육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서 제정된 모든 규칙과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양심의 통제가 결코 자유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님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결국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도덕적인 힘에 의한 교육, 이것이 인간화교육일 것이다.

이러한 인간화교육을 달성키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教育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와 가정과 사회간에 합의가 있는 확고한 교육관이 있을 때 인간화교육은 강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간화교육의 실패는 교육관의 혼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관이 혼란된 주된 요인은 자기와 직접관계가 없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경향을 보이다가도 같은 문제라 다음으로 知行一致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전인적 발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앎과 실천의 不一致現狀에 기인한다. 학문을 통해서 알게된 내용과 이에 반응하는 생활속의 실제행동이 서로 일치할 때 학습은 더욱 강화되고 개인의 인격 또한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教育의 目的이란 아는 사람의 양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教育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教育된 사람은 사물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보는 안목과 자신의 認識에 대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단순히 알기만하고 그 지식에 헌신하지 않을 때 행동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知·行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이런 무력한 지식인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의 높은 지식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은 지극히 관용적인 태도로 합리화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을 마치 지식욕구의 방편으로만 인식해온 탓으로 생활을 학습하는 교육임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 온 것이다. 교육은 곧 생활이다. 생활의 지혜는 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심리적 측면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이 知·德의 조화로서 이루어지듯이 인간화 교육은 知·行이 일치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화 교육은 모든이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의 사회, 경제적 계층이나 배경에 따라 교육에의 접근기회의 제약은 물론이고 이것이 학교교육의 과정적 측면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의 기회에까지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긍정적 학생관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은 긍정적 인간관, 적극적인 학생관에 근거하고 출발하는 인간행위이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교사앞에서 보여주는 오늘의 모습은 완성된 하나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발전이 기대되는 모습이며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교육작용인 때문이다.

결국 人間化 教育의 문제는 교사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 더불어 살고자하는 신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은 먼저 출발점 행동이 약한 학생, 어떤 형태로든 소외된 학생 자기문제조차 드러낼 수 없는 학생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그들이 학교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게될 때 진정한 인간화 교육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頌 於斯買

曹 尙 鉉

泰岐의 우람한 氣像
蟾江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이 福된 등지 위로
아스라이 먼동이 뜬다

庚午年 새해. 소망의 새 아침이-.

아주 먼-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이 땅에 터전을 잡고
於斯買 花田 潢川 橫川으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代代로 알뜰히 살림을 늘어왔고
빼어난 슬기와 지혜를 알 알이 엮어 이어 온 고장.

辰韓의 泰岐王이 新羅와 한판 승부를 겨룰 때 쌓은 泰岐山城이 남아있는
右土.

뒷부리 자락은 東西로 뻗치고
물줄기도 가로 흘러 山橫이요 水橫

사람 마저 남달리 엇간다 하여 人橫이라.

이 山水人 「三橫」은
주때있고 영특한 於新買人의 진취성을 예찬한 말.

그래 高麗 趙冲, 三代의 三元帥를 탄생시켰고

日帝침략으로 온 천지에 먹구름이 덮쳤을 때
3·1의 유혈항쟁이 그 어느곳 보다도 치열했던곳.

— 빼앗긴 나라를 구하자고
抗日青年會 기치 아래 이 고장 장정들이 한 뜻으로 뭉치니

그 간사한 倭놈들도
그 商魂에 밝다는 되놈들도

여기서 만든 발을 붙이지 못했던 곳.

6·25 그날. 내고장 만든 꼭 지키고야 말겠다고
맨손으로 싸우다 散華한 옛된 젊은이들의 넋이
지금도 구리뜰 七層塔에 깃들어 지새우니

예나 지금이나 愛國 愛鄉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곳.

더구나 豊水院은 關東 天主學의 효시
이 땅에 開化의 물결이 처음 밀려온 곳
그 文化傳統은 오늘에 이어져 「희다지 소리」로 큰 상을 받으니

-그래 「橫城가서 잘 난체 말라」는 말이 생겼던 것
바로 여기가 於斯買라
남 보다 앞서가는 곳. 우리의 本鄉.

이 어찌 鄉土史에 앙금진 底力 아닌가.
錦上添花 山河는 더없이 아름다워-

玉구슬이 구르는 鳳復寺 溪流
山蔘이 녹아 흐르는 洛水台의 참 물맛
太宗의 御駕가 쉬어갔다는 駐蹕台
뒷내 개울 강언덕 雲岩亭의 운치

이 어느 하나 비길데 없는 天惠의 우리 땅.

그래 그 청순한 白鷺의 깃털 처럼
티없이 맑고 사리 밝은 뚜렷한 성품이 여기에 맺혀
오늘 이처럼 크게 영글었네.
이 온갖 것. 於斯買 후예의 자랑 아닌가.

이제 우리 하나되어 뿔내 보세
人心 좋고 살기 좋은 내 고향
활력 넘치는 고장이라고-

새해 새 아침. 새날이 밝았다.

泰岐에 솟은
저 영롱한 햇빛처럼

21世紀를 향한 於斯買의 英智
찬연히 빛나리

영원하리라.

註: 「구리뜰」은 갑천면 매일리의 마을 이름. 「洛水台」는 태기산 중턱의
약수폭포. 「白鷺」는 횡성군을 상징하는 새. 압곡리 서식



筆者紹介

- 1935年 橫城郡 晴日面 出生
- 1954年 橫城農業高等學校 졸업
- 1988年 在・春川 橫城郡民 會長역임
- 現在 楊口副郡守

〈시 조〉

요즘에 피는 꽃

곽 영 기

꽃보다
고운 꽃이
요즘 많이 피는데

생기 없고
향이 없어
시들지도 못할것이

첫줄에
뿌리를 박은
억척스런 꽃들이다.



- 출생지: 황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189번지
- 경 력: 시조문학으로 등단
- 제1시조집 「개나리」출간
- 제2시조집 「대관령」출간
- 현재 강원대학교 근무 (서기관)

고집쟁이

곽 영 기

코끝이
빨간 닳에
고집쟁이로 오해될 뿐

출신이야
착하디 착한
순종 감자바위라면서

눈 웃음
내리 사랑에
칭찬이나 해주란다.



미친 하늘

곽 영 기

밤에 부는 셋 바람에
몸둥아리 근지러워
한잔 한잔 불을 지펴
햇바닥이 꼬부라지면
핏발이
눈알을 덮어
별거벗고 날편다.

첫소리는 소리를 찢고
그림자는 그림자 감아
가랭이 섞인채로
영덩이 비틀어대니
하늘도
미쳐버려서
검벽검벽 돌아간다.



〈시〉

桂村別曲 I

김 성 수

산과 산이 이마를 맞대고
나무와 나무가 포옹한 사이로
물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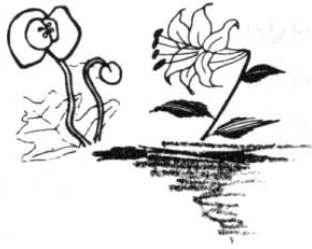
산새소리, 바람소리, 그림이 흐르는 소리
더덕 냄새까지 풀어넣어
더욱 정갈한 물이랑마다
月岩洞 고운 산자락이
하늘거리는데…….

이 아름다운 깊이
모래알이 쌓이듯
우리들 사랑하는 마음이 쌓이고
자연의 순리대로
시간은 흘러가는 것.

나는 보았네
호리소에 연장을 매워
비탈밭을 가는

가난한 농부의 눈 속에서
나는 보았네.

노을보다 더 고운
행복 한 자락이
깔려있는 것을.



桂村別曲 II

김 성 수

산새소리에 잠이 깨어
창문을 여니
청댓잎 처럼 싱싱한 아침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어느새
부지런한 아낙이 피워 올린
새벽 연기는
소박한 꿈이 되어
사재산 허리를 돌아가는데

노루재 등성이에
해가 솟는다.
月岩洞 십리길
환한 새날이 열리면

선바위 밑 오소리골엔
알알이 토실한 감자가 영근다.
살찐 흙 모두어 복을 주는
농부의 얼굴마다
화알짝 웃음이 핀다.

桂村別曲 Ⅲ

수 풍 습

김 성 수

긴발끝 열한 사례
줄줄이 고추를 심어놓고
십일남매의 이름으로
꿈을 키운다.

수길이 제대하면
장가 보내고
내년 봄엔 순회
중학교 보내고
쌍동이 수호 수선이
서울 나들이 시키고…….

포기마다 영킨 사연
가지마다 서린 이야기
아름답기만 한데

스물 두 개의 눈동자
그 유순한 기다림들이 모여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다.
서로 돕는 도타운 정이

햇살에 익어
빠알간 고추가 된다.
안월암 이서방네
꿈이 익는다.



桂村別曲 IV

김 성 수

바람이 일면
바람이 되고

구름이 스치면
구름쟁이 되다가

시냇물에 머릴 행구는
보름달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방의동 십오리길
철쭉꽃 피면
아, 어이하리오.
철도없이 불타는
이 마음을 어이하리오.



- 본적 황성군 우천면 산전리 29
- 1944년 9월 17일생
- 춘천교육대학졸업
-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제9회 창주문학상 수상
- 제8회 원주시 향토문화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강원지부 이사
- 평창 방의분교장 근무

<시>

수 탁

김 양 수

하얀 깃털 속에
도사린 어둠.

조금씩 흔들어 보는
혼자만 아는 무서움.

차라리 감아버린 눈
별빛으로 떴다가
들켜버린 비밀.

울어서 토해도
시원찮은 가슴.

새벽녘에
그가 내게 왔다.



- 1953년 2월 22일 횡성 우천 출생
- 원주중, 원주고, 춘교대卒
- 84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 84년 아동문학 평론 동화 천료
- 저서: 동화집<생각하는 배나무>
- 주소: 춘천시 효자동 낙원 맨손 가동 509호

未 練

이 연 승
황성군 교육청

그녀와 헤어진지가 30년이 넘었다. 아니 그녀의 근황을 안것도 그만큼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녀 아들의 주례를 맡는 나는 주마등 같이 흘러간 잊지 못할 일들이 되살아 나면서 혼자 웃었다.

그녀와 나는 농촌 어느 시골에서 자라면서 국민학교를 함께 다녔다. 그는 놀이를 할때도 같은 편이 되었고 또는 상대방이 되었을 때는 우리편 보다 그녀의 편이 이기기를 바라기도 했으며 나는 우리 편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숙제를 함께 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붓글씨를 써 주는 등 짝궁이라고나 할까. 그후 그녀는 여중으로 나는 남학교로 진학하였고 방학때나 만났다.

그때는 이미 나이가 먹어 남녀가 한자리에서 어울린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이웃과 어른들의 눈치도 살피야 하는 등 어려웠고 사춘기에 들어서서 마음뿐 용기를 내어 만나서 어울려 놀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길가에서 혹시 만나도 오랜 시간을 두고 얘기 한번 못하였다.

그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는 마음은 친하였으나 함께 어울리지는 더욱 못했다. 그녀는 신부 수업에 들어갔고 나는 밖으로 다니는 직장이어서 여직원과 만나는 기회가 많은 관계로 이성에 대한 그녀와의 생각은 더욱 멀어졌다.

그는 20여세를 넘자 나와는 내외까지 하면서도 어쩌다 만나서 얘기라도 오래하여 주기를 원하며 이것 저것 묻기를 자주 했으나 좀처럼 내 마음은 그를 반겨 주는데는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집안 식구로 부터 그녀가 약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과연 떠나가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심장이 멎어지는것 같았다. 그간 마음에 없는 짝사장을 한것이 후회 되는가 하면 심통이 나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약혼후에는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고 또 면발치에서라도 내가 보이면 피해가 버렸다. 약혼이 부끄러워일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에서 였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결혼식도 못 보고 나는 군에 입대하였고 그후 부터는 알려고도 않고 오늘에 까지 지냈다. 가끔 동창회에서 만나면 그녀의 안부를 서로 물었으나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지난 겨울 J사에서 그것도 길거리의 구멍가게 집에서 그녀를 만났다. 함박눈이 내리는 오후였다. 그녀가 먼저 알아보고 반가워 하면서 아니 “E선생님이시잖아요”하고 나의 손을 덥씩 잡았다. 나도 “아-”하면서 손을 잡고 흔들었다. 30여년 아니 40여년전 만져 보던 손이었다.

가게에서 나와 어느 다방에 들어가 그간에 못다한 정담을 나누었다. 그녀는 10여년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활 한다고 한다. 처녀때 부끄러워 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거침없이 얘기하며 때로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한다. 지난 세월 이야기와 그간의 어려움을 얘기 하면서 나의 손을 잡고 얼굴을 비벼댄다. 어릴때 같이 자란 정때문에 모든것이 다정한 친구로만 여겨진다.

知命을 넘은 우리는 주소와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받으며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지난 3월 어느 날 그녀로 부터 전화가 왔다. 오는 4월 어느날이 아들의 혼례식인데 주례를 부탁한다는 것이다.

그후 다시만나 쌍방간의 가정 사정과 직장등을 알아보고 꽃이 활짝핀 따뜻한 봄날 축하객들이 봄비는 예식장에서 나는 그들의 주례를 하였다.

주례를 하는 동안 그녀는 웃고름과 손수건으로 눈물을 푹푹 누르고 있었다.

먼저간 남편에 대한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겠지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효도

하는 며느리가 되고 백년해로를 기원한다는 말을 끝맺음으로 하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례 선생님은 엄마와 함께 자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며 소개 해주었다. 이들이 잘 살기를 기원 한다며 손을 잡아 주었다.

결혼식을 끝나고 나와 헤어지면서 주위 사람들을 의식도 않은채 그녀는 나를 가리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며 눈빛을 빚냈다.

다정했던 열두서너살 때는 이제는 못을 거라면서 봄 햇살을 안고 떠났다.



- 橫城郡 公根面 三培里 出生
- 月刊 文學 新入賞 당선(동시)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아동문학가협회 회원
- 제1동시집 “해를 파는 가게”출간
- 제2동시집 “햇살이 사는 동네”출간
- 복원 문학회 회원
- 제 15회 한 정동 문학상 수상
- 횡성군 교육청 근무
- 강원아동문학회 회원

방울꽃

임 교 순

아름다운 동요를 쓰기 위해서 나는 산과 들을 헤맸습니다. 꽃과 같이 예쁜 동요, 나무와 같이 싱싱한 동요, 바람과 같이 시원한 동요, 햇빛과 같이 포근한 동요를 쓰기 위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찾아다녔습니다.

꽃과 같이 예쁜 동요를 쓰기 위해선 우선 내 마음이 꽃과 같아야 했고, 그래야, 꽃이 말하는 소리나, 꽃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꽃도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숨쉬는 것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빛깔로 나타납니다. 또 소리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꽃은 아름다운 빛깔로 아름다운 마음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생명을 빛깔 속에 넣지 못하면 죽은 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꽃의 마음을 알기 위해 꽃에 오랜 시간을 내 마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꽃들은 내 마음이 울적하다든지 짜증스럽다든지, 욕심이 있다든지 남을 없신여긴다든지하면 이내 꽃은 나와의 마음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을 비웃을 때 꽃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웃을 때 꽃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내가 아주 맑은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꽃을 바라 보면 꽃도 맑은 웃음, 사랑스러운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잘 알고 흔히 보는 꽃들은 나를 겁내고 있었습니다. 꺾어가지나 않을까? 캐어가지나 않을까? 예쁘지 않다고 생각지나 않을까? 하는 겁먹은 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아름답다고 불뿐 꽃의 진실된 마음이나 꽃의 자연스러움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꽃을 보아 넘기는 것 때문에 꽃들은 사람들을 겁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풀이나 어느 나무에 되더라도 꼭 그 나무와 그 풀에 맞는 꽃이며 색깔도 모양도 어느 누가 바꾸어 놓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도록 꽃을 좋아하고 있

답니다.

나는 꽃들의 이야기나 마음을 알기위해 참으로 많은 시간을 산과 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꽃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꽃이 말을 못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꽃의 말 소리를 못듣습니다. 꽃의 말소리는 영어도 독일어도 한국어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 속으로만 오고 가는 말이었습니다. 눈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느날 깊은 산 속에 혼자 피어 있는 방울꽃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서 마음을 피웠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방울꽃은 방울모양으로 소리를 조로롱 내면서 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산노루가 울어도 방울이 조롱 조롱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꺾어가고 싶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방울소리가 그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산새들이 울었습니다. 방울소리가 조롱조롱 울려서 산새들도 못 꺾어 갔습니다. 방울꽃은 방울 소리를 내는 즐거움으로 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방울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방울꽃 동요를 지었습니다.

방울소리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 아름다운 꽃을 꺾어 갈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방울소리로 옮겨 보고 싶을뿐이었습니다.

이 동요를 지은지 10년만에 작곡자의 손에서 또 소리가 나기 시작 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전국의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조로롱 방울 꽃이 혼자 폈어요.

산새들 몰래몰래 꺾어 갈래도

조로롱 소리날까 그냥 둡니다.

산 바람 지나가다 건드리며는

조로롱 방울소리 쏟아지겠다.

산노루 울음소리 메아리 치면
쫄로롱 방울 소리 쏟아지겠다.



- 출생지: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태오지
- 197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 데뷔
- 1974년 강원도 文化賞 수상
- 1983년 소천文學賞 수상
- 한국문인협회 이사 원주지부장

先山을 바라보며

崔 聖 琛

(전서원국교장)

이 學校에 赴任한지도 於焉 滿三年이 되어간다. 今年八日이면 47년이 教職生活의 終止符를 찍고 停年이란 榮光을 업고 下直하게 된다. 오랜 歲月을 외로운 人生으로 自處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教職의 未鍊도 있으려니와 感懷 또한 새로와 진다.

每日 出退勤길가 멀리서 先山을 바라보노라면 榮枯盛衰의 야릇한 感傷에 젖곤 한다. 祖老의 卒去當代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先親(先考)의 死別도 17年の 年輪을 밟게 되니 地下의 孤魂인들 얼마나 외롭게 잠들고 있을까하는 父子之情과 生前의 모습이 彷彿해 진다.

그곳은 陽地바른 名堂자리다. 風水가 的中하여 옛적 누군가가 先手를 써서 사발 그릇을 묻어 表示가지 한 곳이다.

나는 어릴적 先親의 感化를 많이 받았다. 그 분은 言行이 一致하고, 漢學의 大家였다. 書堂을 마을에 開設하여 學童을 가르쳤고 大小婚喪時에는 擇日과 祝文 其他 모든 節次를 主導의 指導하였다. 말하자면 孤高한 선비의 氣像을 잃지 않으셨다. 卽 道學者의 品位와 威嚴이 있었다. 늘 學問을 사랑하고 詩作에 沒頭하였으며 밤 늦도록 漢詩를 朗誦하였다.(現在 漢詩 300首遺作保存) 그 朗朗한 音聲이 至今도 들리는 것만 같다.

그래서 나는 隱然中 學問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싹트고 言行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겠다는 態度가 形成되어 간건만 같다. 또 忌祭祀때에는 沐浴齋戒하고 衣冠을 바르게 입었으며 出他後 家庭에 돌아와서는 홀로 계신 祖母(生母)께 각듯하게 人事를

하시곤 하였다.

秋夕과 설날에는 茶禮를 지낸 後 돛자리를 들고 다니며 雪山인데도 꼭 先山에 省墓를 하였으며 遺德에 對한 逸話를 말씀하여 주었다.

내가 成長하면서 漸漸 禮儀凡節에 눈이 뜨게된 裏面에는 先親이 起居動作을 無意識中에 배우고 그 影響이 큰것이다.

環境과 遺傳은 人間의 性格을 形成하는가 보다. 教育이란 참으로 教師의 一舉手一投足에 學生들이 影響을 받는것이다. 그렇다. 言行一致 示範을 보이는 것이 無言之教가 아닌가? 내가 萬一 武藝를 崇尚하는 그런 家庭에서 成長하였다고 假定한다면 武人の 氣像이 싹뻗을 것이다.

先人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산하게 出勤길에 오른다.

“네가 무엇을 알기에 남의 貴여운 子女들을 가르친단 말이야? 몸조심하고 더욱 修學하여 家門의 名譽를 爲해 努力하여라”고 하셨다 이는 48年前 初發令을 받고 赴任次 人事를 드렸더니 하신 말씀이나 지금도 나의 귓전에 錚錚하다 若冠을 바라보는 18歲의 青年이었으니 그럴만도 하였으리라.

참으로 青天霹靂같은 말씀이었다.

그렇다. 平生修學하여 先親의 말씀을 銘心不忘하자고, 이것이 나의 信念이었으며 靑雲의 뜻을 품고 負笈從事하려는 希望이었다. 오늘까지 이 자리를 平坦하게 지키게 된것이 다 先親의 感化의 德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분은 이 靑草우거진 골에서 永遠히 잠들고 계시다. 事實 人生이란 別것이 아니다. 人生은 지나가는 나그네 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것(空手來 空手去) 아니겠습니까?

나는 先山을 바라볼때마다 이런 感懷에 젖곤 하면서 自己 先山을 자주 찾아가 省墓도 하고 伐草도 하여 自己反省의 機會로 삼았으면 좋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他界하는 날을 생각하면서 이름이나 남기고 갔으면 하는것이 부질없는 所望이다. (人死留名 豹死留皮)

아! 지금도 그 분의 漢詩 朗誦의 朗朗한 목소리가 내 귓전에 錚錚히 들려 오는것

만 같다.

他界하신지 17년이 흘렀지만…….



出生地: 橫城郡 書院面 鴨谷里 169番地

經 歷

1. 學 歷

- 江原道 臨時教員養成所
- 江原道 施行國民學校教員 第三種試驗合格
- 文教部施行中・高等學校(師大卒業程度)
- 教師 資格考試合格(示士生 歷史科)

2. 經 歷

- 國民學校 教師
- 國民學校 校監
- 國民學校 校長(1941-1989. 4. 19)
(總 47年 勤務)

3. 表 彰

- 文教部長官 2回 大韓教育 聯合會長 表彰
- 綠條素星勳章(勤政勳章) 橫城文化賞 등

사랑을 먹고사는 기관차

권 용 환

사람은 수목과 벌레와 짐승과 달라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수 없으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크게 분류하면 아가페(Agape) 하나님에게만 있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사랑과 스톨게(Stolge) 혈통적인 사랑 필레오(Phileo) 우정적인 사랑 에로스(Eros) 남녀의 성적인 사랑으로 나누어 묶어보나 더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을 것이다.

육체는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 정신은 사랑을 받아 여물어 가는 것이리라.

사랑에 매마른 정신은 무력해지며 쇠약해 지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 고목처럼 쓰러지게 된다.

모든 생물은 종족 보존의 섭리 속에서 사랑을 하기위해 달려 간다.

생물에 있어 사랑을 하는 것은 본능이며 생리적 현상이다.

사람에게는 더욱 강하게 꿈틀대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먹고 사는 기관차!

어느 분만실에서 환희의 고향이 들렸다.

피로움의 시작을 알리는 기막힌 비명소리인것 같기도 했다.

구겨진 폐가 퍼지며 오한과 떨림의 세상을 맞아 밀리는 새빨간 손으로 무엇을 잡으려는 발버둥의 고향인가?

돈도 뿌리치고 명예와 권력도 거부하는 모습이다.

오직 사랑의 이슬이 맺힌 어머니 가슴의 품안에서 젖을 물리면 그는 안정을 하고 고요히 잠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을 먹고 사는 기관차!

이른봄 쌀쌀한 해돋는 아침 고아원 담밑 어느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어린
이를 본다.

공포에 떨고 굶주림의 험속한 모습, 뼈마디와 배만 커보이는 그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마에 선명한 핏줄은 무엇을 갈구 하는 것인가?

이제는 절망해 버린 찌들린 그의 마음은 멍하니 돌덩이에 시선을 박고 있다.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잃어버린 황야의 토끼가 되어 맹수의 공격만을 기다리는
것이라 아니 빨리 올것이 왔으면 하는 가냘픈 목덜미이다.

다 있어도 하나가 없어 그리 되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기관차!

Phileo와 Eros가 움트기 시작 하였다.

봄에 새싹처럼 흙을 헤치고 올라와 훈풍에 꽃내음 때문에 들판으로 나왔다.

그를 감싸줄 Stolze와 Phileo의 성이 무너진 그는 꽃샘추위와 흙바람을 생각하지
못했다.

몸집이 큰 외국인과 손을 잡고 극장으로 들어가는 가냘픈 어깨 퇴색된 입술과 누
런빛이 살속에서 투명하게 내비치는 매달린 팔이 사랑의 결핍증 환자이었다.

유홍장 황홀한 불빛속에서 담배 연기와 술 냄새에 찌들린 손때 묻은 나이 어린
여자! 가련한 생을 환각으로 잊으려는 그는 이미 때 늦은 절망에 돈이 하라는 대로
하는 광대가 되었다.

어느 음악회에서 환희의 박수를 치는 가족속의 건강한 딸은 음악회에 감격을 안
은채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고급 승용차 속에서 나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
습과 비교 됨은 가혹한 일이다.

소년원 문을 경찰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뒷모습은 불쌍한 비참한 애석한 그리고

피로운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

사랑을 먹고 사는 기관차!

EROS가 태양처럼 작열하는 때가 되었다.

결혼식 주례사가 터무니 없이 빛나간 어느 여인!

비내리는 오후 구질구질한 여관방에서 구멍난 스타킹을 신으며 아련히 할머니 옆에서 잠든 아들을 생각한다.

신세가 한심할뎨 눈시울에 아들모습이 더욱 선명하다.

여관 문을 나서는 그여인의 모습은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다 떨어진 신발짝 같다.

남자들의 흑심호의와 친절인줄 알면서도 사랑에 목말라 허전함과 외로움으로 못 견디어 따라 나서는 그는 첫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의 당뇨병 환자이다.

이젠 달콤한 사랑을 주어도 흡수하지 못하고 다 배설해 버리고 늘 피곤하여 죽은 나무처럼 말라가는 여자가 되었다.

다 있어도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

사랑을 먹고 사는 기관차!

Stolge Phileo Eros모두가 가라 앉은 찌꺼기만 남았다. 다 우러난 지게미가 되었다.

Agape만이 그를 위로하는 번데기 같은 노인이 되었다. 나비가 될일을 생각하며 바람이 주는 말과 꽃이 주는 의미와 돌이 주는 진리를 더 쌓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존경하며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가 많았다.

팔십오년이나 해로운 두 노인 내외 이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 하얀 나비가 뜰에와 날더니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부인이 죽은것이 슬펐지만 눈물을 흘리기가 웬지 어색하여 울지 못한 그의 모습이 인생을 달관한 모습이었다.

이젠 사랑의 지게미마저 없어졌다.
허전하고 밤이 지루하고 싫어졌다. 그러더니 그에 몇달 못되어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
사랑을 먹고사는 기관차는 마지막 역에 도착한 것이다. 이젠 녹슬수 밖에 없는 동결토막이 되었다.
고요만이 계속되는 오후이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기관차!
사랑을 먹고사는 기관차!
사랑을 먹고 사는 기관차!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사랑을 누려야 한다.
사랑은 권리와 의무이다. 그리고 본능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出生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377번지

우 리 집

김 종 구

“야! 임마 빨리나와 똥 매려워 죽겠단 말야!” 병국이가 소리 지른다.

“왜이래 나도 바쁘단 말야, 급하면 형아는 요강에 누어!” 동생 병은이도 지지 않는다.

우리집은 아침은 이런 광경이 벌어지며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집은 교육청 입구 연립 주택에 있다.

새벽마다 구리고개 넘어 운암정 약수터에 아침산보 겸 약수물을 뜨러 다니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우리집은 나나 애엄마나 아이들도 모두 잠보들이라 아침마다 용변과 세수 때문에 좁은 욕실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한다.

하니 새벽산보는 솟제 엄두도 못낸다.

가끔 큰애가 학교에서 돌아와 오후늦게 한두병씩 떠와 냉장고에 넣고 마시는 정도다. 그렇지만 아침마다 안방 창문을 열면 시원한 맑은 공기와 함께 확트인 멋진 시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저멀리 선들에 조카들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 보인다.

학교가 보인다. 남산이 참 높구나!

부지런한 버스도 막 달려 오는구나!

아! 상쾌하구나! 밤새꾼 개꿈도 말끔히 잊어 버리고 거울을 드려다 본다.

입가에 미소가 지는 날엔 영락없이 길일이다.

아내가 해준 조반을 부지런히 퍼먹고 제1차로 내가 대문을 나선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놀곳이 없어 옥상에서 이리저리 뛰노라면 그 쿵쿵소리

에 이웃들에게 폐가 안될지?

“애들아! 시끄럽게 쿵쿵거리지 말고 교육청 마당에 가서 놀아라.” 빨래 널던 집사람이 이렇게 야단 치지만 싫진 안탄다.

잠꼬래(막내는 밥상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잠보라서 이렇게 부른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구석에서 책을 보거나 혼자 놀더니 요즈음은 이웃친구들과 잘도 사귀어 뛰노는 것이 귀엽기만 하단다.

벽찬 하루 일과도 힘들이지 않고 하고나면 어느덧 하루해가 저문다.

퇴근길 소주한잔 걸치면, 귀여운 새끼들도 그냥둘수 없지!

“아줌마, 쉐베이 과자 1,000원 어치만!”

포장마차 아줌마가 듬뿍 담아주는 과자봉지를 든 나의 발길은 가볍기만 하다.

“야! 과자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신이난다.

이래서 저녁상에는 다섯식구가 다시 모여 산다.

비록 18평의 이 작은 면적이지만 셋방살이 15년만에 마련한 우리집이 최고다.

앞으론 부모님도 모셔 들여야지.

저녁밥을 먹고나면 텔레비전을 서로 불러고 이리저리 돌리느라 야단 들이다.

“요놈들! 텔레비전만 열심히 보면 어떻게 해! 공부는 안하고? 너희들 공부하기를 텔레비전 보듯 해!” 버럭 소리 지르면 “숙제 다했어요.” 막내가 겁없이 대든다.

즈들끼리 저녁기도 드리고 슬금슬금 제방마다 가 버린다.

“아빠 하루에도 몇번씩 들쭉날쭉 이야?”

이렇게 흥을 보면서…….

出 生 地: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86번지

經 歷: 공무원 20년

현근무처: 우천 면사무소

傳統倫理의 現代的 理解

— 五倫을 中心으로 —

崔 聖 琛

(書院 國民學校 校長)

우리 韓國은 옛부터 東方禮儀之國이라 일컬어왔으니, 그 緣由는 이렇다.

2,000年前, 孔子의 七代孫 孔文武의 禮說 ‘東夷列傳’에서 一曰 韓國人은 驕慢하지 아니하고, 二曰 強하나 侵略하지 아니하고 三曰 行步에는 讓步의 美德이 있고 四曰 飲食은 나누어 먹는 것을 즐기고 五曰, 男女는 有別하기에 東方禮儀之國이라 했다고 한다. 이러한 固有의 美風이 있어왔다고 하는것은 世界에 자랑할만한 傳統倫理다.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그 民族은 固有한 傳統을 가지고 있다. 傳統은 民族의 숨결이며, 生命力이며 永遠한 우리 故鄉이다. 우리 民族은 그 속에서 自信을 確認하고 元氣를 되찾고 그리고 기댈 언덕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9世紀以後 西勢 東漸의 激動속에서 우리 固有의 傳統倫理가 物質萬能을 重히 여기는 世態속에서 漸漸 그 價値를 輕하게 여기는 弊端이 肥大하여 온것이다.

事實 한나라의 기틀은 科學文明의 現代化와 함께 健全한 精神文化의 啓發이 앞서야 한다. 民族固有의 슬기로 點綴된 傳統文化의 흐름을 創造의 精神으로 키우고 갖추어 나갈때, 비로소 그 民族은 歷史에 偉大한 遺産을 남기는 것이며, 物質文明의 奴隸로 轉落될때, 그 文化는 시들고 마는 것이다.

三國時代 儒敎가 傳來以後 精神世界와 文物制度에 絶對的인 影響이 컸으며 近世 朝鮮時代에는 儒敎가 國敎가 되어 抑佛崇儒政策을 써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렇듯 우리 傳統倫理가 衣食住및 冠婚喪祭의 基本이 되어 오다가 近世基督教文化의 餘波로 그 命脈이 허물어져감을 볼때, 다시 復興의 進運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五倫의 現代的理解에 言及하고자 한다. 五倫이란 五敎之目이라고도 하며 父子有親, 君臣

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을 일컫는다. 나는 먼저 字義와 概念을 狹義에서 廣義로 解釋하여 오늘의 우리 社會倫理에 適用하고자 한다.

父子有親이란 아버지(父母)와子女사이에는 親愛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옛글에 父慈子孝라고 했다. 父母는 사랑으로 子女를 子女는 孝道로써 奉養하라는 뜻이다. 卽, 父母는 仁慈하고 子女는 孝道하는 그런 天倫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倫理의 基本은 孝이다. 그래서 孝를 百行의 根本으로 삼은 것이다. 다만 五倫은 服從의 關係가 아니라 雙務平等의 倫理다. 居處不莊, 事君不忠, 莅官不敬, 朋友不信, 戰陣無勇 등 모두가 非孝라고 했으니 孝의 重要性을 알아야 하겠다. 다음은 君臣有義다. 오늘의 概念으로는 君은 存在하지 않는다. 國家와 國民 指導者와 被指導者로 생각할 수 있다. 義란 사람으로써 지켜야 할 떳떳하고 堂堂한 道理(Justice)다. 卽, 義理란 社會生活의 核이다. “君事臣 以禮, 臣事君 以忠” 이것이 指導者가 갖는 禮儀다. 社會는 組職上 上下 順從關係가 形成된다. 윗사람은 禮義로 對하고 아랫사람은 眞心을 갖고 國家와 民族의 生成發展을 위하여 誠實한 姿勢가 必要한 것이다.

다음은 夫婦有別이다. 夫婦사이에는 分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分別이란 男女의 役割이 다른데서오는 固有의 美德이다. 옛글에 “男唯女俞하며 卽, 男子는 짧게 對答하며 女子는 길게 對答하게 한다고 한다. 또 男盤革하며 女盤絲이라 卽, 男子의 띠는 가죽으로하고, 女子의 띠는 실로한다는 것이다. 어려서 男子는 굳세고 強健하게 女子는 柔順하고 상냥하게 成長하도록 教育했다. 그리하여 嚴父와 慈母로 形成된 家庭이야말로 篤實한 夫婦有別의 發露다. 自己의 주어진 任務 男不言內하고 女不言外하는 夫婦愛男子는 안일에 미주알 고주알 干涉하지 말 것이며 女子는 바깥일에 이러쿵 저러쿵 開與하지 않는 家庭의 風土가 아쉽다. 家庭은 社會의 基盤이다. 社會의 溫床인 家庭의 倫理는 夫婦同權과 함께 分別있는 禮를 다하는데서 夫婦愛가 形成될 것이다. 다음은 長幼有序다. 老少長幼는 天分秩序다. 卽 하늘이 定한 차례다.

이 秩序意識이 있기에 畏大人하게 되는 것이다. 卽 큰 人物을 두려워 한다는 것. 큰 人物이란 賢德을 갖추고 經驗이 豊富하며 年齡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분을 尊重

하는 社會라야 社會秩序가 維持된다. 이는 큰 人物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마음가짐. 이것은 社會秩序의 權威를 認知하는 일이 된다. 우리는 長幼有序 秩序意識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年長以倍則父事之하고 十年以長則兄事之하고 五年以長則肩隨之라고 한 先人들의 秩序를 배워야 하겠다.

註: 나이가自己보다 갑절이나 많으면 아버지 같이 섬기고, 十年이 많으면 兄같이 섬기고, 五年이 많으면 벗으로 사귄 수 있다.

다음 朋友有信이다. 信이란 信義 卽, 믿음과 의리다. 일찌기 孔子는 定兵(國防)과 足食(經濟) 足信(信義)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 中에서 信義가 없으면 나라가 亡한다고 했다. 無信不立이다. 벗과의 信義 이것은 政府和 國民, 指導者와 被指導的 教師와 學生 學校와 學父兄間的 不信風潮가 오늘날 蔓延되어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信義社會의 建設이 참으로 時急하다. 서로 責善하는 朋友・社會 그리하여 착한 것은 따르고 나쁜것은 고치는 것이다. 선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善則從之하고 惡則改之하니, 善惡이 皆吾師也니라) 이런 境地에 到達되어야 한다.

五倫은 現代生活에 그대로 適用되는 傳統倫理요 現代와 傳統間的 아무런 摩擦이 있을 수 없다. 現代倫理 亦是 未來社會의 傳統倫理가 될것이다.

西歐化 西洋文化의 吸收 또한 바람직하다. 그러나 東洋倫理의 長點 또한 現代文化에 잘 調和 吸收溶解하여 師嚴生敬의 基盤위에서 우리 世代가 다시 再吟味하여야 하겠다.

註: 師嚴生敬- 스승은 嚴格히 가르치고 生徒卽 弟子는 스승을 尊敬하여야 하겠다
다는것- 退溪의 말



간장과 우리 건강

황성문화원 이사 김 정 응

내몸이 천량이면 간장은 구백량. 요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모일류회사의 간장약을 선전하면서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이다.

우리몸에 간장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인데 언뜻 생각하면 체중 60kg인 사람의 간장의 무게가 1.5kg 밖에 안되어서 1/40로 터무니 없는 말같지만 실로 간장 기능의 우리몸에 역할을 알게되면 위에 말한 말이 과장된 표현만이 아닌것을 알수 있다.

간장은 우리몸속에 들어온 모든 영양물질을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 합성하여 저장했다가 필요시 시간과 양을 측정하여 적절히 각 조직과 장기에 공급해 준다.

또 해독작용이 강해서 몸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의 독소 환경공해로 섭취된 독물 공해물질을 놀라운 정도로 해독해서 우리몸을 보호해준다.

이들 두가지 작용외에 조절작용을 돕고 항체생성으로 면역성을 높여주며 비타민의 저장공급 체내에 생긴 노폐물의 배설 촉진 호르몬대사촉진 순환혈액 조절등 500여가지나 되는 생체반응을 일으키는 거대한 우리몸의 화학공장 역할을 한다.

이렇듯 중요한 장기인 간장은 많은일을 하는 만큼 손상되기도 쉽고 손상시 놀라운 재생능력도 가지고 있어 75%가 절제되더라도 4개월이면 완전히 재생되어 원상복구됨을 볼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히 만들어져 있는 장기라도 계속적인 과음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공해물질에 의한 독물섭취 농약이나 약물중독 바이러스나 세균

의 감염으로 방어력보다 이들과 공격력이 강해질때 간세포의 손상을 가져와 기능이 저하되고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까지 진행되어 간장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치료률이 많이 좋아졌지만 1986년 서울대 간연구소의 김정룡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급성간염의 10%가 만성 간염으로 만성간염의 40%가 간경변으로 간경화 환자의 25%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즉 급성 간염환자의 1%가 간암으로 사망됨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서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이관되지 않고 사망되는 예가 있으니 이것까지 포함하면 수치가 좀더 높아지게 된다.

필자는 약 10년전 우리나라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건국민의 5%를 상회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어 80년대 한국인 사망 5대 질병중 상위에 랭크되는 것을 알고 간장의 중요성과 간장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홍보해 초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을수 있는 운동을 해왔다.

아직도 가장문제가 되는것이 간기능의 50~60%만 되어도 간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때야 발견되거나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

간장이 “침묵의 장기”란 이때문에 생긴 말이다.

간장기능이 나빠지면 오는 증상을 간단히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 ① 탄수화물 대사장애- 저혈당이 자주와 피로를 느낀다.
- ② 단백질 대사장애- 혈청알부민농도 떨어져 배붓고 다리붓. 항혈액응고제 헤파린 생성저하로 코피자주나고 멍이 잘든다.
- ③ 지방대사장애- 비타민K 결핍으로 출혈성 경향이 높아지고 당즙생성 부족으로 지방소화 잘안됨. 비리루빈 배설장애로 황달오고 몸가려움증상온다.

이를 다시 요약 정리하면

- ①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고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만

성적인 피로와 권태감이 생긴다.

② 지방질의 소화에 필요한 유화액인 담즙 생성과 분비에 이상이 생겨 식욕부진, 소화불량, 구토증, 설사, 변비가 생긴다.

③ 술, 담배 약물에 의한 독성물질 또는 세균들이 해독되지 않아 중독증상 (예: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이 나타난다.

④ 혈액을 저장할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피를 걸러내지 못해 심장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피를 탁하게 한다.

⑤ 영양분의 저장성이 방해되어 체중이 감소되고 기운이 없고 혈중당의 농도 조절 기능도 약해져 당뇨병이 유발 되거나 악화된다.

⑥ 체내 생리조절에 필수적인 효소의 합성이 억제되고 비타민 호르몬 조절 기능이 저하된다.

이와같이 간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증상이 나타나거나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의 진단을 받게되면 마스크업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치료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아래와 같은 적절한 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

끈기 있는 집념을 가지고 믿고 지시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①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므로 좋아질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다.

② 단백질이 풍부한 고 칼로리 식품을 섭취하고 자기기호에 안맞더라도 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고루 섭취한다.

③ 적절한 약물요법을 필히 병용해서 간세포의 재생과 간기능 환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이때에 간장약을 비타민과 함께 투여 하면 상승작용이 나타남을 볼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나 상당수의 B형간염 보균자의 상존과 작금의 환경 오염은 우리가 먹는 물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다.

농작물의 다량 농약살포 축산물에 의한 오염 공장의 폐수 지속적인 과음 현대병
인 조급증과 신경질에서 오는 충격, 돌발사고로 오는 긴장과 충격 이로인해 우리몸
이 특히 간장에 몹살을 앓고 있음을 상기 해서 예를 들어 술을 하루먹고 삼일 쉬어
회복기간을 주는 현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생력의 간장을 잘지켜 건강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통해 B형 간염예방 주사를 맞고 자기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계속하므로 체력을 돌귀줘야 함을 강조한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리는 나라 中國

— 中國의 史蹟地를 돌아보고 —

횡성문화원이사, 횡성여고 근무 柳 章 熙

지난3월 신한은행(新韓銀行)의 후원과 조선일보(朝鮮日報)의 초청으로 전국의 중
• 고등학교 선생님 20명이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인 중국을 탐방하게 되었다.

필자는 강원도를 대표하여 탐방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홍콩(香港)을 거쳐 중국
의 광저우(廣州), 서안(西安),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일대를 돌아보고 일본 오
사카(大阪)를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우리의 탐방목적은 크게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변화하는 공산권국가(共產圈國家)
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깊은 역사를 간직한 중국의 사적지 탐방을
통하여 우리 역사의 원류(源流)를 더듬어 보자는 것이었다.

짧은 일정이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고 많은 곳을 볼 수는 없었지만 대표적인
몇군데를 골라 소개하고 그러한 사적지들이 우리에게 시사(示事)하는 의미(意味)를
간략히 적어보고자 한다.

혹여 잘못된 소개나 판단이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란다.

○ 손문(孫文) 기념관

신해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임시대통령에 취임한 손문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기념관이다. 그러나 기념관 건물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 이 건물은 대통
령 취임식을 거행한 곳으로 높이 47m의 8각정으로 객석은 4,700석이며 당시 설계공
모전에서 1등을 차지 했다. 건물 전면에는 동상이 있고 현관에는 손문선생의 대형
초상화가 있다.

외부는 각종 열대 식물과 꽃으로 가꾸어져 있다.

삼민주의(三民主義)를 표방하여 근대화된 중국을 이룩하려던 그도 뜻을 다못 편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장제스가 뒤를 이어나 그는 항일과 반공으로 싸우다
본토를 모택동에게 내어준다. 이제는 삼민주의도 민주주의도 모사상(毛思想)도 퇴색
되어 버렸다.

○ 양귀비가 놀던 화청지(華清池)

그 옛날 진(秦), 한(漢), 당(唐)의 도읍지였던 서안(西安)은 장안(長安)으로 불리
워졌던 곳으로 이곳에는 많은 유적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몇곳만 소개하고자 한
다.

화청지는 천하 절색 양귀비(楊貴妃)가 현종(玄宗)과 사랑을 나누던 곳이다. 양귀
비는 원래 현종의 친아들인 수왕(壽王)의 아내였는데 시아버지인 현종이 애첩으로
만들었으니 며느리를 탈취한 셈이다. 그녀를 위해 이곳에 아름다운 궁전을 만든 것
이다.

뒤로는 절벽의 산이 평풍처럼 둘러쳐져있고 이곳 저곳에 아름다운 누각이 들어차
있다. 산 밑쪽엔 온천이 있어 겨울에 온천욕을 즐기고 여름엔 앞쪽 맑고 푸른 연못
에서 목욕을 즐겼다.

연못과 누각, 그리고 기괴한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이다.

또 이곳에는 우지엔시아(五問家)란 것이 있는데 서안사변(西安事變)때 장개석(蔣
介石)이 부하인 장학량(張學良)의 반란으로 붙잡혀 감금되어 할수 없이 국공합작
(國共合作)에 찬성하게된 역사적 사건이 전개된 곳이 있다.

지금도 침실, 집무실, 회의실 등이 있고 붙잡힐 당시 충격으로 깨어진 유리가 그
대로 보존되어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현종이 미녀의 품속에 빠져 당나라를 망쳐버린 곳이
며, 부하의 반란으로 체포되고 끝내 대륙을 모택동(毛澤東)에게 빼앗긴채 타이완으

로 쫓겨난 장개석의 기구한 운명이 결정된 곳이기도 하다.

○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의 릉(陵)과 병마용항(兵馬俑坑)

진시황. 통일과 폭군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이다. 불노초를 구하러 우리나라에 까지 사신을 보내고 생전에 불노초를 구하지 못한채 죽어서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불노초를 구하러간 사신을 기다린 무서운 황제.

진시황의 릉은 현재 봉분만 남아 있지만 병마용항을 포함 그 둘레가 6.2km(십오리)이다. 능이 아니라 차라리 산(山)이라고 표현함이 옳을 것 같다.

어렸을때 경주에 가서 왕릉을 보고 입을 딱 벌렸던 필자는 이 거대한 능 앞에서 입을 다물수 없었다.

병마용은 그가 죽은 다음 그의 혼을 호위하기 위해 살아 있을때 흙으로 병사를 만들어 묻어 놓은 것으로 지금 한 곳만 발굴해 놓았는데 그 길이가 230m 폭이 60m이며 6,000명의 토용이 있다. 그런데 그 6천 병사의 얼굴모습이 모두 다르다. 생전 그의 근위병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손에 무기까지 쥐어 놓았으나 항우가 파헤치고 무기를 제거했다 한다.

이 같은 병마용이 네군데 있다하나 확실치는 않을 것 같다.

얼마나 그의 권력이 막강했으며 죽은 다음을 걱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

○ 인간의 불가사의(不可思議) 만리장성(萬里長城)

우주왕복선을 타고 달에 갔던 암스트롱은 인공위성에서 볼 수 있었던 인조물(人造物)은 오직 만리장성 뿐이었다고 말한 일이 있다.

북경(北京)에서 북쪽으로 약 70km에 위치한 팔달령(人達嶺)은 대표적인 곳으로 이곳에서 좌우로 그 길이는 무려 6,700km이며 9개 성(省)에 걸쳐있다. 높이 평균 7.8m 폭 평균 5.8m 대부분 흙을 굳혀만든 큰 벽들로 되어 있으며 석조도 있다.

옛부터 흉노족을 막기위해 군데 군데 쌓았던 것을 진시황이 연결하여 완성시켰으며 30만명의 병사가 죽었다 한다.

이때에 생긴 말이 “하룻밤을 자도 만리상성을 쌓는다”이다.

이곳에 들어간 돌만 추려 늘어 놓아도 지구를 한바퀴 돈다고 한다. 험한 산등성만 골라 연결시켰고 군데군데 망대와 관문이 있다.

장성위에 서니 감회가 깊었다. 강원도 촌사람이 이 역사적 유물위에 우뚝 설 줄이야.

○ 명(明) 황제의 공원묘지 13릉(陵)

명나라 3대 영락제부터 마지막 승정제까지 13명의 황제의 묘가 북경 교외산 기슭에 펼쳐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대리석의 비루(碑樓)가 있고 얼마쯤 지나 유명한 석상군(石像群)이 있다. 길 양 옆으로 말, 기린, 코끼리, 낙타, 사자등의 조각이 있고 이어 신하들의 모습이 조각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매우 크다. 이 조각을 만들기 위해 수백리에서 집더미만한 대리석을 운반해 왔다. 추운 겨울에 대리석에 물을 자꾸 퍼부어 두텁게 얼음이 얼게한 다음 통나무 위로 끌어 옮겼다하니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상상해 볼만하다.

13릉 가운데 지금은 정릉(定陵)하나만 발굴해 놓았다. 이 정릉은 3만명을 동원하여 6년간 만들었으며 당시 명나라의 2년간 재정이 쓰여졌다고 한다. 지하 27m의 궁전이다. 석실의 높이 9.5m 폭 9.1m의 돔(Dom)식으로 되어 있으며 대리석 옥좌까지 마련되어 있다.

○ 서태후(西太后)의 보금자리 이화원(頤和園)

총 면적 267ha의 넓고 넓은 이 궁전은 곤명호(昆明湖)라는 커다란 인공호수(人工

湖水)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다.

금(金)나라때 부터 조성된 것으로 역대 황제들이 계속 늘렸고 1888년 서태후가 별궁을 재건한 것으로 사치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전각의 마루는 동물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고 지붕은 금색으로 뽀뽀하다.

호수를 따라 연결되는 난간의 길이만도 758m. 채색이 아름다운 난간이다.

궁정안은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 되었고 각국에서 선물 받은 진귀한 시계만도 하나의 궁을 메운다.

곤명호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큰 누각모양의 배가 있는데 태평성대를 빌기위해 만들었다 한다. 호수는 인공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넓고 호수에게 배를 타고 바라보는 궁전은 정말 아름답다.

결국 이러한 사치가 아편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되었지만.

○ 세계 최대의 박물관 고궁(古宮)

명·청의 궁전으로 일명 자금성(紫禁城)이라고 하며 천안문(天安門)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본 영화 「마지막 황제」의 무대이기도 하다.

총면적 72만㎡ 남북 1,000m 동서 750m의 장방형 궁전이다. 높이 10m의 붉은 성벽으로 둘러 쌓여 있고 성 밖은 폭 50m의 도랑으로 둘러져 있다.

건축면적 15만㎡이며 9999칸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하루에 한칸씩 옮겨가며 자면 27세가 된다고 한다. 100만명의 인부와 10만명의 기술자가 동원됐고 1406~1420년까지 14년간에 걸쳐 지은 것이다.

지붕은 모두 자색(紫色). 자색은 황제의 색깔이다.

전반부는 태화전(太和殿), 중화전(中和殿), 보화전(保和殿)의 3개 궁전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내정(內庭)이다.

실내의 화려함은 말할것 없고 궁궐내에 즐비한 방화수통 까지 금으로 도금 되어 있다.

황제가 다니는 길은 대리석 통으로 조각 되어 있고 난간들도 모두 조각이다. 외국 사신은 전각안에 들어 갈수 없고 밖에서만 조공을 바치고 조하를 드렸다 한다.

○ 윤봉길(尹奉吉)의사의 숨결서린 노신(魯迅)공원

천장절을 맞아 홍구공원(紅口公園)에서 폭탄을 던져 수많은 일본 장성들을 몰살 시킨 윤봉길의사는 이곳 상해에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수억 인구를 자랑하는 자기나라 중국에도 그런 분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국 신문학의 심볼로 불리는 노신(魯迅)선생을 기리기 위해 공원이름을 노신공원으로 바꾸고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윤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야 할 자리에 노신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우리의 영웅은 어디로 갔는가. 하루 빨리 중국과 교류가 확대되고 국교가 트여 그분의 동상을 꼭 세워야 하지 않을까?

착잡한 마음으로 공원을 나섰다.

서안 북경을 중심으로 극히 소수의 유적을 소개 하였다. 앞으로 시간과 지면이 있으면 더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는 여행동안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5천년 역사를 가진 저 사적지들이 오늘날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보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하나 나의 느낌은 이러했다.

첫째 대부분이 소수의 집권자들이나 황제의 권위와 사치를 위해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다. 한사람의 황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가 결국 그러한 사치와 낭비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중국인들은 그들의 사적지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발하고 있다. 약삭빠른 일본인들이 합작으로 개발하자고 졸라대도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개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십년이 가든 백년이 가든 자기의 손으로 가꾸겠다는 그들의 정신이다.

세제, 사적지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예를 들어 서안사건때 총탄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인민혁명을 합리화하고 장개석을 이단시 하려는 저의가 있음이 아닐까?

이러한, 사적지들이 오늘에 와서는 중요한 외자(外資)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어느 안내원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먹여 살리는 나라입니다.”

다섯째, 중국의 유적들이 웅대(雄大)하다면 우리의 사적은 섬세하며 수려(秀麗)하며 서민적이고 백성중심의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우리의 것이 비교 되지 못할 정도로 작더라도 그 속엔 깊은 얼과 정성이 깃들었고 아기자기한 멋이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5천년 기나긴 역사속에서 언제 우리가 중국 대륙을 어깨 펴고 다닌 일이 있었던가? 아니다. 조공을 들고 가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거렸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을 펴고 올림픽 뺨지를 달고 활개치며 중국을 누비고 돌아 왔다.

그들은 올림픽 뺨지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그것은 국력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적 발전과 서울 올림픽이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지금 우리는 분명 새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정말 멋진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20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도록 말이다.

학생 문예

-89년 글짓기 대회 입상작-

〈시〉 [최우수]

들 꽃

우천중 3학년 2반 박 윤 희

찬란한 생명의 힘을
한몸에 받아
한가닥의 외로움을
홀로서 달래어 본다.

마음에 피어나는
모든 외로움과 그리움을
사랑과 희망의 웃음입은
노오란 그리움의 들꽃한송이로
달래어 본다.

평화롭고 푸르른 별판에
외로이 홀로 서서
수줍음을 달래려 하지만
웬지 허전하고 쓸쓸하다.

호수와 흰구름 안에도
외로운 들꽃이 그리움의
눈물을 아른거리며

흐느끼고 있는 듯 하구나

아!
한송이 외로운 들꽃이여
그대는 과연 외롭고 슬픈가

모든 진리와
참됨을 아는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한송이의 들꽃이여라.

사랑의 꽃이여
희망의 꽃이여
그대는 과연
한송이 외로운 들꽃이런가.



〈동 시〉 [최우수]

산 길

현천국교 5학년 1반 김 의 주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산새가 노래하는
산길

산길을 걷다보면
귀여운 다람쥐가
반갑다고 인사하네

한참 걷다보면
아기 노루가
인사하네

산길이 나와 친구되어
즐겁다고 하하하

아름답고 아름다운
산길은
나의 돌도 없는 친구요
산의 엄마요.



〈시〉 [최우수]

웃음뎌 각시탈

황성여고 3학년 이 금 숙

풀씨 말라 붙은
검정 고무신

다리위로 말아 올린
흰 무명옷
가녀린 어깨
나풀거리는 흰수염

할아버지는
찬 이슬을 밟으며
잠든 숲을 깨운다.

물이 잘 오른
오동나무는 어드메에 있느냐

도끼자루 든 팔은 굽었어도
눈빛은 나이를 몰랐다.

나무 찍는 소리에 놀라
서산으로 숨어버린 한낮의 태양

밤이 깊고 날이 새도록
그의 방엔 쇠뿔과 망치소리

그리고 잦은 기침소리.

달이 바뀌고
그는 여위어 갔다.

산은 어느새
그를 닮아 희었고
오동나무는 찾을 수 없었다.

어느 겨울아침
그의 기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방엔
오동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차가운 노인의 가슴팍엔
평생을 그리며 살아온
각시탈이 다소곳이 웃고 있었다.

〈동 시〉 [우 수]

산 길

공근국교 6학년 1반 윤 신 영

꼬불꼬불 하고 울퉁불퉁한
조그마한 오막살이
옆 산길.

지나가다 들으면
종달새 소리
앉아 귀 귀울여 들으면,
멀리 오두막집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산길에 혼자 외로이
있으면,
할머니의 냄새
산길의 푸른 흙 냄새.



(시)

들 꽃

대동여중 1학년 4반 이 화 순

언제나 묵묵히
지켜온 그 한자리.
오늘도 그 한자리를 지키며
외로이 미소 짓는다.

눈보라, 비바람을 헤쳐가며
고요한
넓다란 들판위에서

날개돋는 꿈을 꾸면서
희망을 안고
오늘도 지킨다.
그 한자리를…….



〈시〉 [우 수]

탈 춤

둔내고교 1학년 3반 송 금 자

어이 어이 어거야
저기 해가 솟으려네.

감추어진 얼굴에
넘치도록 일렁이는 북소리를
길게 드리우고
오천년 어머니의 혼을 엮어
어이 어이 어거야

한쪽 기운 어깨너머
겸손의 맥으로
할배의 수염을 남몰래 휘날리며
어이 어이 어거야

칭아하게 흘러든
하늘의 기운을
치켜올린 여린 손끝으로 받아마셔
어이 어이 어거야

살아나는 몸에
끝없는 용트림으로
절망을 깨뜨린 닭이 해를 치고
어이 어이 어거야

시나브로
바람결에
마지막 발놀림이
숨을 내쉬는데

어이 어이 어거야
그 몸짓으로 그렇게 그렇게
해가 솟으려네
해가 솟으려네.



〈동시〉 [우 등]

꿀 벌

창림국교 6학년 1반 김 영 은

꿀벌은 매일매일
꽃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가꾼다.

어제는 붉은 꽃,
내일은 분홍색 꽃,
그 다음은?

날마다 날마다
고와지는 마음

꿀벌은 매일매일
달콤하게 일한다.

오늘은 하얀 꿈
내일은 파란 꿈

꽃속의 나라는
정답고 즐거운
꿀벌들의 나라.



〈시〉 [우 등]

하늘과 구름

대동여중 1학년 4반 박 수 희

하늘은
넓은 마음을
구름은
개구장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 넓은 하늘에
두리둥실 떠가는 구름은
꿈이 될까?

하늘은
구름이
아주 하얀
흰구름이 되기를
기도 하겠지.

구름도
하얗게 더욱더 하얗게
자라고 싶겠지.



〈시〉 [우 등]

탈춤

둔내고교 2학년 1반 심철호

둥 둥 둥
나를 감춘 하늘이
떨고있다.

선과 선으로
삶의 애환이 흘러
복소리는, 침방이는 물소리.

선대의 고녀를
소매끝에 묶어
이리저리 둘러르고
하늘은 그대로의 나.

역사의 실수를 위한
작은 소용들이로
천지를 포용하고
존음을 달관한 모습으로
남는다.

하이얀 옷자락에
하이얀 웃음을 문혀
공간으로 공간으로
들로 셋으로
나를 감춘 하늘을 넘나든다.

지칠줄 모르는
마지막 자유로
머언 먼 나의 역사를 장식한 채
하늘은 떨리고 있다.

둥 둥 둥
나를 감춘 하늘을 위해
선대의 고녀를 위해
나의 역사를 위해
떨고 있다.

〈산문부〉 [최우수]

진 달 래

횡성국교 5학년 3반 정 소 현

식구들과 함께 산으로 갔다.

아빠산소에 풀 뽑아주러가는 것이었다.

아빠산소는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하는 산에 있다. 그리고, 걸어서 20분 정도 가야한다.

아빠 산소가 있는 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분홍색 물결이 아빠 산소가 있는 산을 뒤덮고 있는, 아주 멋있는 모습이 보인다.

엄마와 나, 그리고 언니들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아빠에게 줄 꽃을 따기로 했다.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부터 분홍색 진달래가 울창하다.

분홍빛 진달래 가지를 꺾으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아빠가 살아계실적에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묘에 진달래를 꺾어서 갖다놓은 적이 있다. 봄이 되서 아빠산소에 꼭 진달래를 갖다 놓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리고, 고향에서 어렸을 적에 뒷동산에 핀 진달래 속에서 아빠와 놀다가 꽃 속에 파 묻혀 아빠가 나를 못찾은 적도 있다고, 언니가 말해준 이야기도 있다.

꼭 이 두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식구는 꽃하면, 꼭 진달래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진달래 속에 아빠 아니 우리 식구들의 추억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빠도 돌아가셔서 땅 속에 파 묻을 때도 관 위에 진달래 꽃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그전에 아빠 산소에 때 입혀주러 갈때도 봄이어서 진달래가 아빠산소 주위에 울창하였다.

작은 아버지 말씀으로는 진달래 때문에 때가 잘 안자란다고 하셨다.
그래서, 아빠산소 주변에 있던 진달래를 다 베어 버린 일이 생각난다.
그리고, 작년 봄에 가 보았더니 또 진달래가 울창하였었다.
올 봄에도 그 울창했던 진달래를 베어 버리러 식구들이 모두 함께 갔었다.
할머니는 꼭 아빠산소에만 가시면,
“아이고, 이놈아 애미 두고 니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하고 통곡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갈때에는 할머니는 안 모시고 가자고 하였다.
그랬더니, 엄마는
“이놈아, 어미가 자식한테 가는데 그걸 못 가게 하면은 어떻하니.”
하며, 나만 야단치신다.
그래서 할머니도 모시고 식구들과 함께 산으로 갔다.
산으로 가 보니 분홍빛 진달래가 한창 활짝 피어 있었다.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막내작은 아버지께서는 톱으로 그 진달래를 베려고 하였
다. 그러나 엄마, 나, 그리고 언니들이 한사코 안 된다고 말려서, 그만두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진달래를 베지 않았으니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
진달래를 베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땅 속에 묻힌 아빠도, 활짝핀 진달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산문부〉 [최우수]

슬픈 봄의 소나타

공근중 3학년 권희순

산산조각 나버린 태양의 파편이 소리없이 흐러내리던 어느날, 우리 15세 소녀들의 가슴속에도 서서히 봄바람이 일고 있었다. 나른하고 매사가 귀찮고, 소설속에 나오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망상에 잠기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봄에 걸맞은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연못에 던진 돌의 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교정의 개나리가 하나 둘씩 꽃망울을 터트릴 무렵 우리는 그 날도 참새떼처럼 모여앉아 열심히 재잘대고 있었다.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화제는 같은 학년 남학생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한국인의 가장 큰 취미라는 남의 흥보기는 빠질수가 없었다.

“애. 이번 반편성은 참 재밌게 된것 같지 않니?”

“뭐가?”

“2학년 때 까불고 놀기 좋아하던 애들은 모두 1반이 되고 반면에 공부밖에 모르는 학구파들은 모두 2반이 됐잖아, 1반 녀석들 지금도 신나게 놀고 있겠지? 낄낄.”

우리는 모두 한바탕 웃으며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나서 며칠 후

화장실가는 길에 만난 국민학교 동창 승철이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날씨 탓이려니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야, 네가 뭐야? 뭔데 남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이니?”

비꼬는듯한 그 한마디. 실로 충격이었다.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마구 뿔 수 밖

에 없었다.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었다. 2학년에 즐기 좋아하던 다른 아이들도 나만 보면 재수가 없다는니 속이 거북하다는 등 노골적으로 적의를 표하는 것이었다.

그 때 승철이는 한창 2학년 여학생과 교제중이어서 나는 그 일 때문인 줄만 알았다. 그 날 점심시간, 수돗가에서 승철이와 마주쳤다.

“어쩐, 그렇게 뻔뻔스러울수가 있니?”

새삼 놀라울 뿐이야.”

승철이의 말에 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리려고 할 것만 같았다. 내가 언제부터 남에게 미움받고 살 만큼 못한 아이가 됐나 싶어서.

그날 오후 6시.

나는 가장 친하고 비밀이 없는 친구 애희와 함께 창고를 나갔다. 창고 안은 어둡다 못해 음침하기까지 했다. 이미 거기엔 승철이를 비롯한 4명의 아이들이 나와 있었다.

“애희, 넌 들어가줄래. 넌 필요없으니까.”

비꼬는 듯한 투의 정석의 말이었다.

“싫어, 난 회순이 친구야. 들어가지 않고 함께 있어 줄 의무가 있어.”

“야, 친구면 다냐? 네가 뭔데? 네가 뭐야.”

아이들은 창고안의 농기구와 빗자루등을 난폭하게 집어던지고 있었다. 호미나 삼이 내 발 앞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어느 새 소회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

“야,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네가 그렇게 잘 났니? 너 회순이 말야. 우리반을 가리켜 공부도 못하는 놀 줄만 알고 이성교제에 푹 빠진 놈들이라고 했다면?”

그 순간에도 그들은 계속 삼을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삼과 삼이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공간안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너 같으면 기분 좋겠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 봐. 응? 말해 보란 말야?”

애희의 울음소리는 어느 새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고 내 볼에도 굵은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싫었다. 무서웠다. 이 무서운 공간을 빨리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들의 난폭한 짓은 그칠 줄 몰랐고 소희와 나 둘만이 남게 되었을 때 소희는 내 품에 안기어 마구 울고 있었다.

“희순아. 어쩜 그럴수가 있니? 그렇게 믿었던 애들인데…….”

정말 그럴수는 없었다. 2학년 때 그렇게 친했고 비밀이 없었던, 둘째간다면 서러워할만큼 친했던 애들인데…….

더구나 승철이는 나와 가까운 친척에다 국민학교 동창이었는데, 정석이 또한 한때 애희의 가장 친한 이성친구였는데…….

아무리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한들 그럴수는 없는 것이었다.

애희와 내가 운 것은 무서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울함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다. 몇 년동안의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던 순간의 실망 때문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철저히 실망한 적은 없었으리라. 그들의 야비한 목소리가 계속 내 귀에 메아리쳐 들리는 것만 같았다.

시인 서정윤님의 그의 시에게 이렇게 노래했다. ‘홀로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서럽지만…… 결국 홀로서야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또 다시 쓰러져 있었다..’

그 날 난 사방을 헤매어 구한 갈대 한 줄기를 애희에게 주며 가만히 속삭였다.

“애희야, 갈대의 꽃말은 믿음이라. 우리 영원히 우정을 잃지 말자. 우린 홀로서야 한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나봐.”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걸을 때 어느 곳에선가 유행가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별은 두렵지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실로 슬픈 봄날의 추억이었다. 영원히 내 뇌리에서 지우고 싶은—.

〈산문부〉 [최우수]

마 중

횡성여고 2학년 5반 최혜경

별이 너무 많다. 하늘이 꼭차고야 말았다. 한 낮의 그 뜨겁던 열기가 달빛의 냉기에 식은 듯 시원하고 춥기까지 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네 바깥쪽 신작로엔 하얀 선만이 희미하게나마 보일뿐이다.

개울을 건너다 얼핏 본 물 속의 달이 무섭기까지 하다. 세상에 나혼자같이만 느껴지는 이 시간, 저 쪽 뒷산에서 갑자기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겁이 많은 내가 부끄럽기도 하다.

아직 버스가 올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도 일부러 일찍 집에서 나온 나의 비밀은 별과 달과 주님은 아실것이다.

나만의 이 시간의 소중한 글씨 말로써는 형용이 안된다.

언제였지 그 때가 내가 이 시간을 처음 갖았던 날이…….

태양이 그 뜨거운 정열을 퍼붓던 날이들이 계속되던 그즈음 열심히 물가로만 뛰어다니던 하루하루.

바깥의 열기보다는 차라리 방안이 더 시원했다. 열어젖힌 창문으로 바람도 들어오고 가만있으니 덥지도 않은 듯 했다. 나의 그 시원한 시간을 깨뜨리신 분은 어머니였다. 갑자기 장속의 이불들 솜이불, 담요 등을 꺼내시며 내게도 어서어서 들고 나가라고 소리치셨다.

다시 또 태양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투덜거리며 빨래터로 달려갔다.

새하얀 가루비누를 풀고 이불을 담가 발로 꾸욱꼭 밟으며 빠니 짜증이 가신듯도 했다. 게다가 개울의 커다란 돌위로 흐르는 물에 던져 비눗물을 싹 빼니 마음까지

후련해 지는 것도 같아 짜증은 커녕 더욱 즐거워졌다.

태양의 열기는 그 두꺼운 이불들을 금세 뽀송뽀송 말려주었다. 그 길던 여름 낮도 저물어 스산한 바람이 감도는 저녁 무렵 어머니께선 온 방안을 이불로 가득 메우시고 열심히 바느질을 하셨다. 한뼘한뼘 꿰매시는 손길이 무엇인가 쫓기는 듯이 서두르고 계셨다. 보다 못한 나머지 바늘을 찾아 실을 꿰어 한뼘 긴 나는 아직 먼 겨울까지 남은 시간들이 있는 데 어째서 서두르시냐고 넌지시 여쭙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지시고 긴 한숨을 내쉬시며 언니와 동생들을 불러오라 하셨다. 어리둥절해진 난 얼른 모두 불러왔다. 모두가 모인 자리 어머니께선 조용히 이젠 할머니와 아빠와 같이 살림을 꾸려야 한다 하시며 내일 떠나시는 이유와 우리에게 당부 말씀 하셨다.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어떤 말을 해야할 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았다. 마냥 우물쭈물하다 막내의 가시지 않으면 안되냐는 말에 왈카 눈물이 솟구쳤다. 난 왜 그 말이 떠오르질 않았을까, 후회와 모를 슬픔에 가슴아픔은 눈물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몰래 집 옆 개울가에서 밤 늦도록 훌쩍이다가 피로에 몰려 스프르 찾아든 이불 속에서 베개에 파묻은 얼굴엔 아직도 눈물이 흐렸다.

날은 또 밝아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온 난 떠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뵈 용기가 도저히 없었다. 핑계삼아 성당에 간다는 구실로 어머니께 꾸벅 인사만 하고 찾아간 성당에서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주지 않은 둘째때문에 저려오실 가슴을 생각하니 난 또 눈물을 아무 쓸모없는 후회의 방울을 흘렸다.

그렇게 떠나시던 날이 지나고 뛰어나가 어머니를 기다렸다. 버스에서 내리시는 어머니께 환한 웃음과 건강한 모습으로나마 그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 마중이라는 만남을 난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 많은 기다림의 순간들이 내겐 무엇보다 소중한데. 내 이 조그만 정성이 드리는 작은 기쁨이 어머니의 주름진 모습을 곱게 찌드렸음하는 소망도 키워본다.

밝은 불빛이 시야에 밀려온다. 버스가 오고 있다.
내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실은 버스가…….



〈산문부〉 [우 수]

진달래 꽃피는 고향

횡성국교 5학년 2반 정 주 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횡성새말 이라는 동네에 갔다.

점심은 근처에 유명한 막국수 집에서 때웠다. 그리고 네덜란드 기념비로 향했다.

가다가 멋진 젓소와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아저씨를 보았다. 이 모습을 보니 역시 횡성 사람들이 부지런하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조금더 가니 산에 큰 동상이 보였다.

달려가 산에서 자세히 보니 어떤 군인이었다. 아빠는 저 사람이 오우덴 장교라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그 동상이 멋있어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찰카 여러번 찍었다.

언제 한번 다시 놀러 오고 싶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는 단체로 놀러와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놀다 뒤로 가보니 석판에 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읽어보니 횡성 감리교회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 싸우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다른 외국에 나가 싸우다 돌아가신 장교야말로 참다운 군인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우덴 장교의 피로 물들어 진달래가 피는것이 나의 바램이다.

이렇게 훌륭한땅 횡성의 전통을 계속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산문부〉 [우 수]

우리의 길

둔내중 2학년 4반 최 수 미

어느 화창한 봄날 이었어. 나는 친구들과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었지. 저기 끝까지, 아니 산 넘고, 물을 건너 어느 곳까지 뻗어있는 아스팔트 길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포부를 주는 것 같았어.

다른 아이들에게는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정말 그러했거든? 어느 한 곳에 끈어짐 없이 쭉쭉 뻗은 그 길은 정말 희망과 포부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학창 시절과도 같이 튼튼 있었어. 먼 저쪽엔 아지랑이가 아른 거리고 있었지.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걸어가고 싶었어. 꼭 천국을 가는 기분이었어. 나는 그날부터 결심에 결심을 했지. 꼭 아스팔트 길 처럼 곧게만 살아 가겠다고 말이야. 물론 어느 한 곳에라도 흠이 없는 것은 아니야. 길이 “내려가면 고통 구불구불하면 고비”, 이렇게 생각하니 꼭 우리 나라의 발전 상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 우리 나라는 경제수준은 점차 향상 되지만 정치 문제는 구불 구불한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위험한 고속 버스와 같거든? 언제 지나 이 구불거리길 달려야 할지 모르겠어. 또, 어디까지 달려야지 곧고 확트인 길에 접어들지도 말야.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어. 남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들은 무척 멋진 사람들 일거야. 모두가 이기적인 탈을 쓰고, 자기 중심적인 옷을 입고 변모하고 있어. 언제부터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지금 비인간적인 길을 가고 있는거야. 곧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있는거지. 나도 그러할거야. 동생들과 우애도 없고 친구들과도 그렇게 높은 우정의 탑을 쌓지 못하였으니까 말이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곧고, 희망에 넘치는 길로 가고 있을 꺼야. 난 믿고 있어. 우리들도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자기의 이익과 권리도 찾으려 말야. 모든 사람들이 그

러하다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할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겠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올라 서러하고……. 이런사회에 어찌 감히 평화나 행복이 깃들지 큰 문제야. 하지만 이제 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꺼야. 열심히 알차게 살아가면 되니까…….

푸른 꿈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이여!

우리야말로 이 나라를 지고갈 역군이 아닌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생활하면 이 나라도 곧, 곧은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나라가 될꺼야. 그것이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여 바른 길로 가는 지름길일 꺼야. 그 우리들의 길로 힘차게 달리는 거야!!



〈산문부〉 [우 수]

화려한 외출

갑천고교 2학년 1반 정 명 희

라일락 향기 은은히 풍기는 4월의 종지부에서 난 언젠가처럼 그 무엇인가를 이제 좀더 의젓해진 모습으로 맞아 이겨내 보고 싶다. 그날의 그때처럼 스스로 그것의 마중을 나가 보고 싶다.

누군가의 도움없이, 저 스스로 피어 흐드러진 싸리꽃처럼 내 혼자의 힘으로 그를 마중하고 싶다.

난 눈을 감는다. 그러면서 지금의 나를, 누군가를, 또 이렇게 마중할 수 있게 해준 그날에 나를 꼭 물어본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어느해 가을, 부모님과 떨어져 도시에 있는 큰집에서 학교를 다닐때다. 어린 나이때문인지 난 큰집식구들의 눈치를 유난히 살폈고 그래선지 어느 곳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한마디 못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언젠가 부터 서서히 아파오던 곳이 점점 아파움을 느꼈다. 앞에서는 호랑이 같던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셨고 난 차마 아프다는 말 못하고 인상만 쓰고 있었다. 끝내는 울음과 함께 선생님의 부축을 받으며 양호실의 하얀천장을 보게됐고 놀란 얼굴로 달려오신 부모님은 나를 병원으로 옮기셨다. 며칠간의 검사를 받은 결과 난 '○○○'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시골집으로 -그때 우리집은 부모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렵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병원신세를 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약간의 약과 치료를 받은후 내려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부모님과 난 고통의 여신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한창 들에는 누런 황금물결이 출렁거렸으며 너무도 풍요로운 세상이었건만 우리가정은 너무도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아마도 그때부터 난 가을을 싫어하게 되었나보다. 그러면서 고통의 여신은 나에

게 항상 조소만 보낼 뿐,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려고, 따뜻한 입김 한번 품어 주려하지 않았다. 동안의 어머니는 몸소 구할 수 있는 약이란 약은 스스로 구해다 주셨고 정말로 너무도 극진히 날 보살펴 주셨다. 그러면서 한달 두달의 시간이 흘렀고 그런 어머니 모습을 지켜보던 행운의 여신은 그냥 지나치지 만은 아니했다. 점점 회복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한 나는 내가 태어난 겨울에 또 한번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모성애가 고통의 여신을 이겼고 그 모성애로 난 가쁜한 몸으로 그녀를 마중하고 올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수 많은 만남이 있다.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사랑사이 사람과 죽음 사이, 그리고 사람과 고통사이, 우린 그런 만남들속에서 그것을 몸소 마중할 수 있는 기회는 과연 몇번이나 있을까? 난 그런 만남들 속에서 하나를 겪었고 또 내 스스로 마중도 해 보았다. 그때부터 난 누군가를 보내고 맞이할 수 있는 무형의 능력들을 쌓아가고 있었다.

너무도 서늘하고 좋은 오후다.

유난히 화단의 꽃들이 아름답다.

웬지 모를 어떤것을 꼭 해야만 아니 꼭 해보고 싶은 때다.

‘무엇일까?’

맞다, 난 지금 빨리 준비를 하여야만 한다. 신록의 계절인 사월을 마중하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난 화려한 모습으로 외출을 하련다.



〈산문부〉 [우 등]

도시락

수백국교 6학년 1반 이 정 은

얼마전의 일이었다.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동생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동생이 가져다 주겠지하고 기대를 했지만 동생은 내도시락을 보지 못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집에 가지도 못한다. 수업중 올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다. 할수 없이 그냥 앉아 공부를 할수밖에 없었다. 아침밥도 조금밖에 먹고오지 않은탓에 벌써부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고 경보종이 울린다. 더군다나 요즘은 식욕이 한창 늘어가고 있는중인데…….

할수없다. 모두 내탓이니…….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여느때 같으면 점심시간 되자마자 점심 도시락이 없어질세라 먹어치웠을텐데……. 아! 그리운 도시락! 왜 이제까지 도시락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을까?

내가 도시락을 같이 먹는 애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남자애들이 끼어들어

“건망증이 심해서 그래”

하고 놀려댔다. 나는 신경질이 났지만 모두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 할수 없다.

여느때만 같으면 그냥 막 때려 주었을 텐데 배가고파 때릴 힘조차 나오지 않았다.

난 그냥 교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한테로 와

“우리 같이 먹자. 서로 도우면서 사는데 좋잖아”

하며 내팔을 붙들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게는 그말 한마디가 세상 어느 말보다도 정답게, 친절하게 느껴졌다.



〈산문부〉 [우 등]

어느 봄날 유난히도 외로웠던 꽃산

대동여중 3학년 3반 한 지 혜

햇님의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산너머 들녘의 소들을 살찌우는 4월의 풍경이다. 아카시아 내음이 물씬 풍기는 4월에는 어린 소녀의 사춘기라 할까?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산란케 하는 것일까? 이럴때 마다 나의 안식처이자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꽃산이라 일컬어지는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봄 풍성한 산을 찾는다.

오늘도 여지없이 마음이 허전으로 차있는 듯해서 산등성이를 오르며 인내를 기르고, 까만 얼굴의 조그만 구슬 땀방울을 굴리는 모습을 머금은 그러한 산을 나는 언제부터인지 그래 맞아 6학년 아카시아 내음을 내 코끝을 건드리던 그날부터 동경해 왔다.

나는 햇빛이 아카시아 잎들사이로 조각 나는 나무 아래 앉았다. 그리고 머리를 굴려서 아람이와의 처음 만남을 구슬려 보았다.

뒤로 꼭꼭 땅아늘인 긴 검은 머리, 언제나 나에게 보내는 하얀 미소 방긋이 들어간 보조개의 주인공인 아람이를 처음 이 꽃산에서 만났다.

아람이는 숨을 헐떡 거리며 산등성이를 올라왔지만 나는 여느때도 많이 와 보았던 곳이라 아람이를 도와 주웠던 친절에서부터 우리의 우정의 나무는 깊은 암흑 세계에서 벗어나 파아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고마와, 그런데 너는 이 근처에 사니!”

“응 어릴때부터. 그래서 난 꽃산을 좋아하게 되었어.”

나의 말에 아람이는 우리의 앞뜰에 보이는 집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나두 너처럼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곳에서 살고 싶어, 그런 의미로 난 너랑 우정의 나무를 가꿔 보고 싶은 데…….”

“우정의 꽃을 피워 보자”

“좋아 우정의 꽃을 피워 보는거야, 그럼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자.”

아람이를 처음 만난 설레임으로 다음날도 어김없이 우리 둘은 산동성의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만났다.

아무시간 약속도 없이…….

“지혜야, 나는 언제나, 이 산을 동경해 왔어. 아무런 꾸밈도 없고, 그리고 거짓도 없는 산을…….”

“그런데, 난 동경까지 안해 아람이.”

“아니야, 나같이 몸약하고 병들은 아이에겐 이런 산은 징역이지만 나의 이 꽃산은 나의 인생관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

“아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병이라니?”

“아니야, 그냥 감기 일뿐이야. 우리 꼭대기까지 경주 할까?”

아람이는 얼굴이 빨갱게 되면서 무척이나 서둘러 나의 말을 가로막았지만 나는 아람이의 얼굴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다음날, 그 다음날…….

우리들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다.

아람이는 서울 어느 회사 사장의 외동 딸이라서 별장을 보러 왔다는 것도…….

다음날도 어김없이, 하늘 나라 태양의 진실한 마음을 만끽하며 산동성의 아카시아 꽃들이 하이얀이 조각나는 곳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늘 먼저 선수를 치던, 아람이는 보이지 않고 나뭇가지 틈 사이로 핑크빛 편지의 빛이 아침 햇살을 더욱 그 빛을 선명히 나타내었다. 또박또박 썼지만, 군데군데 얼룩이 진걸로 보아 눈물을 흘린 것을 알수 있는 아람의 필체를 읽어 내려 가기 시작했다.

「To. 지혜

안녕이란 한 마디의 단어도 쓰지 않고 즐거웠던 추억만 가지고 떠난다.

멀리 산 너머로, 봄바람이 도망가고 있어, 그걸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꽃산의 마지막 펜을 잡을런지도 몰라, 지혜가 이글을 보고 있을때는 이미 아람이는 미국으로 출발한 비행기에서 하늘 나래를 펼 때일거야.

미국으로 떠나면 돌아올지, 아니 영영 지혜를 못볼지도 몰라.

만남 뒤엔 이별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의 우정의 꽃은 얼마나 컸을까?

너는 우리의 만남을 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동경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지. 그러나, 지혜야 산은 우리에게 끝없는 인생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푸르름이 짙어가는 4월 아람이가 영영 눈을 뜨지못하면 지혜가, 아카시아 하얀이 부서진 꽃들을 하나만 아람에게 선사해 준다면, 아람은 끝없는 행복의 길을 거닐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햇살이 하나 둘 눈을 뜨기 시작했어.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에-

“아람아”

나는 이렇게 아람을 외쳐 보았으나 허공중에 산산히 부서질 뿐!

아람이는 이렇게 내결을 떠나간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아람이가 자주 바라보던 먼발치의 집들을 내려다 보았다.

‘아람아 네가 떠나던 다음부터 나도 이 꽃산을 좋아하게 되었어.’

산비탈을 내려오던 나에게 어느 화사한 봄날 아침 햇살의 담백 비쳐주는 어느 봄날의 아침 나절이었다.

〈산문부〉 [우 등]

남아 선호사상에서 느낀일

횡성여고 1학년 5반 김 남 희

40이란 숫자는 별 것이 아니지만 40년이란 단어는 무척 길고도 험란한 시간 같다.

40여년전의 엄마들 세대에는 싱싱한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히 피는 곳이었다고 한다.

이런 푸르른 자연 속에서 이 조그마한 자연인 그 어린이들은 운명의 때도 입지 않고 오만한 멸시의 어둠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그 날의 싱싱함은 없다. 아마 자연도 세대 교체를 하는가 보다.

몇해전 이었던가?

나는 엄마로 인해 ‘이것이 바로 세대차인가 보다’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엄마! 나 어릴때 애기 좀 해줘요. 예!”

나는 엄마 팔을 늘어 잡고 이렇게 쨍얼거리며 즐겼다.

“애는! 중학생이나 된 것이 두살 먹은 어린 아이 보다도 더 언네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어렸을때부터 고집이 아주 셋던지라 엄마 팔을 잡고 끝까지 늘어졌다.

그러자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너 어렸을때 노래도 잘 부르고 예쁘고 귀여웠어.”

하시며 웃으셨다.

“너 날때 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연이어진 아빠의 말씀이셨다.

“맞다. 난 죽을 고생을 해서 낳더니만 딸이지 않냐, 그래서 무척 서운하더라.”
하시며 어머니께서 그날을 되새기시며 말씀하셨다.

“엄마! 그렇게 서운하시면 아들을 낳으시지 왜 저 같은 딸을 낳으셨어요.”
나는 화도 나고 남자의 존재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엄마한테 툭 쏘아 붙였다.
‘여자는 왜 남자에 비해 모든 사람들로 부터 선호를 못 받는가?’나는 이 사실이 무
척 서운했다.

“니 아빠는 막내 날때 딸일거라고 병실에도 들어오지 않더라.”
엄마께서는 아빠를 바라 보시며 말씀하셨다.
“딸이 뭐 볼게 있어! 그래도 흑시나 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아들이더라구. 간호원
이 막내를 안고 나오는데 저 놈이 주먹을 입에 넣고 빨고 있더라. 난지 이틀도 안
돼서 벌써 주먹을 빠는걸 보고 저놈 굉장히 장난 꾸러기 이겠구나 하고 생각했
지.”

하고 아빠는 내게 서운한 말씀을 하셨다.

“막내가 딸이었으면 아들하나 더 낳으려고 그랬는데 아들이래서 좋더구나.”
엄마도 역시 내게 싫은 말씀을 하셨다.
난 엄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실때 마다 무척 섭섭하다.
어느날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께서는 남동생 밥부터 떠주시
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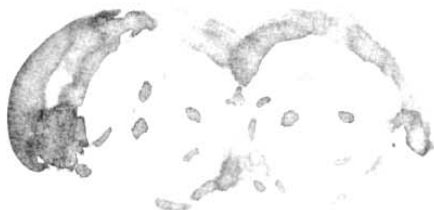
“흥! 내가 제일 위인데 아들래미 밥부터 떠주고, 나 밥 안 먹어.”
“어휴, 저 고집도, 너 그래 갔고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
“그래도 그렇지, 아들래미만 제일인가”

하며 나는 어머니께 말 대답을 했다.

결국에는 제 1차적인 욕구로 인해 알뜰게도 밥 한 공기를 비우고 말았지만 마음
속은 언제나 짹짹했다.

우리 동네에는 딸 다섯에 아들 하나인 집이 아주 많다.

나의 친한 친구네도 딸 다섯에 끝으로 아들이 하나이다.
이것 또한 옛날 어른들의 낡은 사고방식인 '남아 선호 사상'에서 오는 것일거다.
그래서 난 요즘 세대의 젊은 엄마들이 좋다.
딸 하나만 낳고도 그걸로 만족하니 말이다.
물론 그 중에는 옛날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도 있지만…….
난 이해가 안 된다. 옛날 40여년전 모든 여자들은 '난 이다음에 커서 딸도 공부시키고 절대로 아들과 차별하지 않을거야'하고 누구에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아들만 낳으려고 야단들인지 모르겠다.
나 또한 이 다음에 시집가서 자식을 낳으면 꼭 딸을 낳겠다고 결심을 하곤 한다.
비록 몇 년이 지나 나의 이 맘이 변한다해도 그 시대에서의 딸이란 존재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여자의 존재가 귀중하다고 느낄때까지 나는 살고 싶다.



〈기행문〉

사적지 순례단에 참가하여

횡성여고 3학년 김원춘

새벽길에 오른 버스는 제법 사람이 있었다. 벌써 출발했으면 어떻게하나 하는 두근거림을 간직하며 문화원으로 갔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인 사적지 순례단 참가 학생들은 모두 싱그러움을 얼굴에 담고 있었다. 7시 20분 횡성을 출발하였다.

길게 늘어지는 조국의 강산이 펼쳐지는 영동고속도로의 시원함을 따라 10시에 천안 독립기념박물관에 도착했다.

두번째 방문한 기념관인데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먼저 제5관까지 둘러보며 조국이 걸어야만했던 수난과 치욕의 길을 보았다. 쉼터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기념관을 들었다. 원형극장에서 본 “사랑하는 나의 조국”은 정말 놀라웠다. 내용도 좋았고 고도의 기술에 더욱 감탄했다. 기념관을 돌아보던중 3·1운동때 활동을 하셨던 최양옥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다. 군자금을 조달하시려 목숨을 바치시던 일을 상상하니 머리속여 감사드려 진다. 몇번의 기념촬영을 끝내고 몇시간의 기념관 방문을 끝내고 다시 아쉬운 발걸음을 유관순기념관으로 출발하여 4시 30분에 도착하였다. 향을 넣어 묵념을 하고 조국을 위해 옥에서 숨져가신 유관순열사께 감사하며 20분 후 다시 현충사로 출발하였다. 이곳에는 수학여행때 와봐서 낯이 익었다. 옛 모습 그대로 담장 하나 하나, 풀한포기, 나무한그루, 그대로 옛 모습을 간직하며 숨쉬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모습도 그대로 장엄하게 계셨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묵념을 하고 있었다. 잔디 한잎, 나무한그루 그모습 그대로 장군님의 공로에 고개 숙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각 방을 돌아보며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머리속에 담으며 아쉬운

마지막 사적지에서 버스에 올랐다. 얼마 지나자 시원함이 가슴에 쏙아 들어왔다. 바로 바다와 강이 양쪽으로 펼쳐진 아산만 이었다. 총길이 2,564m 높이 17m의 둑이다. 이 둑이 생기고 부터는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오지 않아 풍작을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이 둑은 충남과 경기의 경계라고도 한다. 바닷내음과 강가의 시원함을 동시에 느끼며 중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며 마지막 우리들은 모두 어울려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버스에서 내릴 때는 섭섭한 마음에 내리기가 싫었다.

기사아저씨 안내언니 선생님들 꼬마들 친구들 모두 헤어지는 아쉬움으로 기분이 울적했다. 저녁 8시 30분에 도착한 횡성은 조용하고 평화스런 내 고장 이었다. 지금 쯤 피곤에 지쳐 잠자리에 들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나도 잠이 오는것 같다. 천안의 능수버들 아산만의 시원한 바다…… 모든것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고 기억에 남는 현충일을 고이 추억속으로 보낸다.



〈특 집〉

橫城 地方에 口傳되는
傳來童謠 研究

目 次

I. 序 言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17
B. 研究 問題	118
C. 研究의 範圍	118
II. 研究의 結果	119
A. 傳來童謠의 採集	119
B. 傳來童謠의 內容	121
C. 傳來童謠의 形式	129
D. 傳來童謠의 表現 技巧	132
E. 橫城 傳來童謠의 特質	136
III. 要約과 提言	141
A. 要約	141
B. 提言	142
參考 文獻	144

橫城地方에 口傳되는 傳來童謠 研究

小說家, 現 晴日國校 教師 鄭 才 永

I. 序 言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우리는 現代를 가리켜 第三의 産業革命時代 혹은 科學的 技術革命의 時代라 부른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을 背景으로한 産業社會는 人間의 文明에 대한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중 하나는 人間을 物質的, 時間的으로 부터 解放시켰으며, 다른 하나는 産業社會의 강력한 支配體制에 의해서 人間의 行動儀式과 思考方式이 操縱 당하고 있어 人間本然의 價値를 喪失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물처럼 밀어 닦치는 外來文物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요즘, 무분별한 外來文物의 受容 및 濫用으로 옛부터 우리들 핏속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담긴 우리만의 傳統文化가 점차 褪色해 가고 있으며, 차체에 우리의 전통 文化의 保存과 創達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庶民들의 情과 恨이 서리설킨 庶民文學의 獨보적 存在라 할 수 있는 傳來童謠가 國際化 時代, 開放化 時代의 外來文物 浸蝕 속에 우리들 모두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또한 빛이 바래져 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어릴때 體驗이 各 個人의 人格形成에 지극히 重大한 영향을 미치며, 어린 시절 父母나 교사로 부터 받은 文學教育이 一生을 두고 그 사람의 人生觀이나 世界觀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비취볼때, 橫城地方에 口傳되는 傳來童謠를 찾고, 文書

化 시키며, 한걸음 더 나가 橫城에 사는 아동들에게 전래동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 줌은 이땅에 살던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릴수 있다는 생각에서 本 研究를 시작하게 되었다.

本 研究에서는 위에서 밝힌바 처럼 橫城 各 地方에 口傳되는 傳來童謠를 채집, 정리하여 文書化하며, 채집된 童謠를 기초로 하여, 傳來童謠의 내용, 形式, 表現技巧를 연구 분석하고, 橫城 傳來童謠만이 가지는 特質을 다른 지방 전래동요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B. 研究 問題

本 研究는

첫째,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는 어떤 노래들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가?

둘째,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는 어떤 形式으로 이루어 졌는가?

셋째, 황성지방 전래동요는 表現方法이 어떠 했는가?

네째, 황성 전래동요의 내용은 어떤것인가?

다섯째, 황성 전래동요는 어떤 特質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들을 채집, 정리, 분석하여 研究한다.

C. 研究의 範圍

本 研究는 橫城郡 관내 8개 읍·면에 口傳되는 傳來童謠와 신경림¹⁾의 「韓國 傳來童謠集」과 鄉土誌인 「江原道誌」 「橫城郡誌」에 수록 된 황성지방의 전래동요만을 研究의 대상으로 삼았다.

1) 신경림, 「한국 전래동요집」, 창작과 비평사, 1984

II. 研究의 結果

A. 傳來童謠의 採集

1) 전래동요의 수집상황

표1) 傳來童謠蒐集상황

수집대상	兒 童	成 人	문 헌	계
수집편수 (%)	56 (54.9%)	32 (31.37%)	14 (13.72%)	102 (100%)

위 분석표에서 보듯이 1978年 부터 1988年까지 本 研究者가 採集한 嶺南 지방의 전래동요는 모두 102편 이었으며, 전래동요를 채집한 대상자를 살펴보면 兒童들에게 56편 54.9%, 成人에게서 32편 31.37%, 문헌에서 14편 13.72%를 각각 채집 하였다.

전래동요를 부르는 대상이 아동이라서 채집된 동요중 과반수가 넘는 동요들을 아동에게서 얻을 수 있었으며 成人들에게서 채집 된 동요들은 대부분 歷史가 오래된 동요들이 많았다. 또한 문헌들에서도 14편이나 얻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전통놀이때 부르는 놀이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 했다.

2) 많이 알고 부르는 전래동요 상황

표2) 兒童이 많이 알고 있는 전래동요

순 위	전래동요제목	알고있는아동수	백분율(%)	비 고
1	고모네집	104	80	대상아동
2	여우야 여우야	98	75.38	(130명)
3	원숭이 똥구멍은	85	65.38	
4	동무동무 새동무	80	61.53	

순 위	전래동요제목	알고있는아동수	백분율(%)	비 고
5	해야 해야 나오너라	75	57.69	
6	꼬마야 꼬마야	70	53.84	
7	순이아버지	60	46.15	
8	고바우 영감이	57	43.84	
9	감자에 싹이나고	55	42.30	
10	엄마엄마 나 죽거든	45	34.61	

표3) 成人들이 많이 알고있는 전래동요

순 위	전래동요제목	많이알고있는성인수	백분율(%)	비 고
1	시상 달강	98	61.25	대상자
2	이거리 저거리	95	59.37	(160명)
3	췌췌췌	90	56.25	
4	앞니 빠진 갈가지	87	54.37	
5	등개 등개야	85	53.12	
6	아침방아 찻라	83	51.87	
7	황새야 독새야	82	51.25	
8	잠자리통 파리통	75	46.87	
9	쫓겨나는 며느리	70	43.75	
10	샘물 노래	68	42.5	

위 분석표에서 보듯이 橫城의 兒童들과 成人들이 많이 알고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兒童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傳來童謠는 「고모네집」이 대상아동 130명중 80%를 차지하는 104명이 안다고 응답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여우야 여우야」, 「원숭

이 똥구멍은」 「동무 동무 새동무」 「해야 해야 나오너라」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상이 아동들이라 놀이에 관한 노래가 가장 많았으며, 놀림과 해학의 노래, 인간생활의 노래, 自然의 노래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成人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전래동요는 아기를 달랠때 부르는 「시상달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이거리 저거리」 「씨씨씨」 「앞니빠진 갈가지」 「등개 등개야」의 순으로 응답했다.

成人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전래동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래들이 요즈음은 거의 불려지고 있지 않는 歷史적으로 볼때 상당히 오래된 노래들이 많았으며, 노래들도 아기를 달래거나 잠 재울때 부르는 자장요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부모입장으로 자식을 양육할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밖에는 成人들은 自然과 해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래동요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놀이노래는 成人에게서 단한편도 눈에 띠지 않았다. 이렇듯 형성의 전래동요들은 전래동요를 부르는 계층과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애창되고 전승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B. 傳來童謠의 內容

1) 傳來童謠의 素材와 主題

표4) 傳來童謠分類 (대상편수: 102편)

차 례	傳來童謠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分類
		素 材	主 題	
1	고모네 집	고모집	친척간의 화목	인간생활노래(生活謠)
2	동무동무 새동무	친구	우정	〃
3	사랑하는 아줌마	아줌마	친척간의 우애	〃

차 례	傳來童謠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分類
		素 材	主 題	
4	사랑하는 언니야	언니	형제애	인간생활노래(生活謠)
5	엄마엄마 나 죽거든	어머니	어머니를 사모함	"
6	쫓겨가는 며느리	며느리	가족간의 우애	"
7	엄마 생각	어머니	어머니를 기다림	"
8	꼬마 신랑	신랑	가족화목	"
9	사촌형님	시집살이	시집살이의 어려움	"
10	우리 엄마	어머니	엄마의 나들이	"
11	동무	친구	우정	"
12	돌아가신 엄마	어머니	어머니를 사모함	"
13	어깨동무	친구	우정	"
14	비야비야	비	비가오지 말기를 기원함	자연의노래(自然謠)
15	샘물	샘물	깨끗한 물을 바램	"
16	달아 달아	달	효도	"
17	해야 해야	해	자연과의 친화	"
18	까치야 까치야	까치	이를 빨리 나게 부탁함	새(鳥)노래(動物謠)
19	티꺼내기 노래	까치	눈에 티를 꺼내 달램	"
20	따운따운 참새야	참새	엄마를 사모함	"
21	황새야 독새야	황새	자연과의 친화	"
22	떡해떡자 부엉	부엉이	먹을것에 대한 근심	"
23	핑핑 핑서방	핑	핑을 놀려줌	"
24	피꿀냉 피꿀냉	피꼬리	피꿀새 예찬	"
25	가재와 개구리	가재, 개구리	자연과의 친화	"
26	닝닝 너구리아	너구리	너구리를 놀림	"

차 례	傳來童謠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分類
		素 材	主 題	
27	쥐야 쥐야	쥐	동물을 사랑함	짐승과물고기노래(動物謠)
28	꿀 돼지	돼지	많이먹는 아이를 놀림	"
29	아가리 딱딱벌려라	미꾸라지	미꾸라지 피임(자연과의친화)	"
30	두껍아 두껍아	두꺼비	자연과의친화(먹이)	"
31	두껍아-	두꺼비	자연과의친화(새집타령)	"
32	알나라 콩콩	잠자리	잠자리 알 놓게하기	벌레, 곤충의노래(動物謠)
33	아침방아 찻라	방아개비	자연과의 친화	"
34	잠자리통 파리통	잠자리	잠자리 놀리기	"
35	잠자리 꿈자리	잠자리	잠자리 피이기	"
36	나무하러 가세	나무하기	나무하는 보람	일노래(勞動謠)
37	호미질 노래	호미질	농사일의 고달픔	"
38	베짜기 노래	베짜기	베짜기의고달픔(시앗에 대한 결투)	"
39	시집살이 노래	점심준비	농촌의 주부의 바쁜모습	"
40	소몰이 노래	겨릿소 부림	발갈이의 흥겨움	"
41	소몰이 노래	호릿소 부림	발갈이의 흥겨움	"
42	가랑잎 떠벌떠벌	가랑잎	가랑잎의여행(自然과의친화)	나무 풀 꽃의노래(植物謠)
43	가랑잎 때굴때굴	가랑잎	"	"
44	할미꽃 할머니	할미꽃	딸을 기리는 모정	"
45	장다리는 한철이요	장다리, 미나리	자연의생장모습(자연과의친화)	"
46	때굴 때굴	도토리	도토리의 가치	"
47	꽃 사세요	장미	꽃의 아름다움	"
48	뻥데기노래	뻥데기놀이	즐거운 뻥데기놀이	놀이노래(오락요)
49	미니 미니 미니뿔	가위 바위 보 놀이	즐거운 가위바위보놀이	"

차 례	傳來童謠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分類
		素 材	主 題	
50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대문열기	재미있는대문놀이	놀이노래(오락요)
51	개미삼촌	삼촌	재미있는술래뽑기놀이	"
52	우리집에 왜왔니	꽃찾기놀이	꽃찾기놀이의 즐거움	"
53	감자에 싹이나고	가위 바위 보놀이	가위바위보놀이의즐거움 (감자를 기다리는 동심)	"
54	깡통에 보리밥은	방귀놀이	방귀놀이의 즐거움(농촌인심)	"
55	강강 술래야	술래잡기	즐거운 술래잡기놀이	"
56	달려라 기차	기차놀이	즐거운 기차놀이	"
57	풀풀말아라	풀잎말기놀이	재미있는풀잎말기놀이	"
58	때굴때굴 땀때굴	술래잡기놀이	재미있는 술래잡기놀이	"
59	딱딱 붙어라	돌맹이쌈	재미있는 돌맹이쌈놀이	"
60	도레미파 붕	방귀놀이	방귀놀이의즐거움	"
61	똥고라미 똥고라미	그림그리기놀이	그림그리기놀이의 즐거움	"
62	췌췌췌	기리기	손뼉치기 놀이의 즐거움	"
63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놀이	줄넘기 놀이의 흥겨움	"
64	여우야 여우야	여우놀림 놀이	재미있는 여우놀림놀이	"
65	이거리 저거리-	다리빼기 놀이	재미있는다리빼기놀이	"
66	엄마밥이 더 많니	쌀이는 놀이	쌀이는놀이의 즐거움	"
67	오니아 오니아	줄넘기놀이	줄넘기놀이의 즐거움	"
68	때때 말러라	물건말리기놀이	물건말리기 놀이의즐거움 (배를먹고싶어함)	"
69	여보여보 당신은	줄넘기놀이	줄넘기놀이의즐거움	"
70	자동차 놀이	자동차놀이	자동차놀이의즐거움	"
71	맘돌기 노래	맘돌기놀이	즐거운맘돌기놀이	"
72	공치기 노래	공치기놀이	즐거운 공놀이	"

차 례	傳來童謠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分類
		素 材	主 題	
73	춘향이 춘향아	춘향이놀이	흥미있는 춘향이놀이	놀이노래(오락요)
74	꼭꼭 숨어라	숨기장난 놀이	숨기장난놀이의 즐거움	"
75	대문놀이 노래	대문놀이	재미있는 대문놀이	"
76	수박따기 노래	수박따기놀이	재미있는수박따기놀이	"
77	방망이점 노래	방망이점 노래	방망이점놀이의즐거움	"
78	울베이 짚베이	잘우는 아이	잘우는아이를놀림	놀림과 익살의노래
79	고바우 영감이	영감	영감을놀려줌	(해학, 풍자요)
80	친구들	친구	나무간친구를놀림	"
81	순이 아버지	순이 아버지	순이아버지흠연모습을 놀림	"
82	시골처녀가	처녀	시골처녀를 놀려줌	"
83	옛장사 똥구멍은	옛장수	옛장수를 놀림	"
84	원숭이 똥구멍은	원숭이	원숭이를 놀림	"
85	앞니빠진 갈가지	이빠진 아이	이빠진 아이를 놀림	"
86	하늘천 따지	훈장	훈장을 놀림	"
87	중중 까까중	까까중	머리짧은 아이를 놀림	"
88	밀가루 반죽	중국, 미국인	중국, 미국인을 놀림	"
89	에비시디 강낭콩	강낭콩	강낭콩을 놀림	"
90	일러라 찢러라	고자질장이	고자질장이를 놀림	"
91	새는 새는 낭개자고	엄마품	아기를 잠 재우기	자장가및
92	시상 달걀	아기	아기 달래기	아기달래는노래
93	자장 자장	아기	아기 잠 재우기	(자장요)
94	동개 동개야	아기	아기 달래기	"
95	만약에 인절미가	인절미	인절미에 대한 노래	음식의노래(生活謠)

차 례	傳來童謠名	素材 및 主題상의 分類		기능상의 分類
		素 材	主 題	
96	쌈먹고	쌈	이웃과 쌈 나눠먹기	음식의노래(生活謠)
97	엄마야 아빠야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먹고싶어함	"
98	새복아 먹기노래	새고기	새고기를 먹고싶어함	"
99	장난감 기차요	과자사탕	아기에게 과자 사탕을 줌	"
100	형님상	음식상	형님께 음식 대접하기	"
101	공부시켜 주세요	중학교 진학	중학교에 가고 싶어함	인간생활노래(生活謠)
102	웃놀이노래	웃놀이	웃놀이의 즐거움	놀이노래

* 分類기준

- A) 童謠의 分類는 임동권의 「민요연구」 분류 기준과 신경림의 「한국전래동요집」을 참고 하였음.
 B) 童謠제목은 本 研究者가 내용과 소재를 참고하여 임의로 붙였음.

표5) 傳來童謠의 기능상 分類

차 례	전래동요 내용	편 수	백분율	비 고
1	놀이 노래 (오락요)	31	30.39%	대상편수102편
2	인간 생활 노래(生活謠)	14	13.72%	
3	놀림과 익살의 노래(해학요)	13	12.74%	
4	일 노래(노동요)	6	5.8%	
5	자장가와 아기달래는 노래(자장요)	4	3.9%	
6	자연(自然)의 노래(自然謠)	4	3.9%	
7	동물들의노래(動物謠)	18	17.64%	
8	식물들의 노래(植物謠)	6	5.8%	
9	음식에 대한 노래	6	5.8%	

가) 전래동요의 기능상 分類

採集된 전래동요 102편을 임 동권의 「民謠研究」와 신경림의 「韓國 傳來童謠集」을 참조하여 기능상 분류를 해 본 결과 위의 분석표 5)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해석 해 보면 놀이 할때 부르는 놀이노래가 31편 30.39%로 가장 많았으며, 動物들을 노래한 動物謠가 18편 17.64%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人間生活을 노래한 동요가 14편, 놀림과 익살의 노래인 해학요가 13편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일 할 때 불렀던 勞動謠와 식물들을 내용으로 한 식물요, 음식에 대한 노래가 각각 6편이었고, 자장요와 自然을 노래 한 自然謠가 각각 4편씩이었다.

나) 傳來童謠의 素材

표6) 傳來童謠의 素材

素材	놀이	인간	동물	식물	음식물	자연물	노동	기타	계
편수	31	28	19	7	6	4	6	1	102
%	30.39	27.45	18.62	6.8	5.8	3.92	5.8	0.9	100

橫城地方의 口傳되는 전래동요들의 글감 즉 素材를 살펴보면 위의 결과 분석표 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02편의 전래동요중 兒童들의 놀이를 소재로 한 동요가 31편 30.39%로 가장 많았고, 人間을 소재로 한 전래동요는 28편, 동물들을 소재로 한 동요가 19편 식물을 소재로 한 동요가 7편, 음식물을 소재로 한 동요가 6편, 노동을 소재로 한 동요가 6편, 기타동요가 1편으로 고른 소재가 쓰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래동요 자체가 兒童의 생활 속에서 兒童의 삶의 모습들을 노래한 것이라, 그에 따라 동요의 소재도 兒童들의 놀이, 부모형제, 친척, 동무들 人間생활을 노래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요즘같이 兒童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현대문명들이 없던때라 自然을 벗삼아 自然과 하나가 되는 自然을 소재로한 노래들도 많이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다) 傳來童謠의 主題

표7) 傳來童謠의 主題

主 題	人間愛	놀이의즐거움	해학과 풍자	自然과의 친화	노동의 힘듦
해당평수	21	31	13	31	6
%	20.58	30.39	12.74	30.39	5.88

嚴 基元²⁾은 主題란 글속에서 作者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 즉 作者의 信念이거나 哲學이며 가치관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主題란 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채집 된 전래동요들을 어떤 뚜렷한 기준에 의거하여 주제가 유사한 郡(郡)끼리 묶는일은,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미진하고 주제파악을 하는데 따르는 연구자의 주관성 때문에 本 研究者의 주관적인 임의성이 많이 작용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의 결과 분석표 7)을 보면 102면의 동요들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정리 하였는데, 놀이의 즐거움과 自然과의 친화가 각각 31년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따뜻한 人間愛를 주제로 한 동요가 21편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해학과 풍자가 주제인 동요가 13편이었고 노동의 힘듦과 보람을 주제로 한 동요도 6편이나 되었다.

이처럼 橫城에 傳來되는 童謠들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즐거운 兒童들의 놀이와, 自然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自然愛가 주된 주제였으며, 부모형제, 친척, 동무들의 훈훈한 정이 교감되는 人間愛도 이곳 전래동요의 주된 주제였었다. 그와 더불어 庶民들의 情과 恨이 어우러진 해학도 여러군데 동요에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옛날 조상들의 삶의 면모가 그들의 즐겨 불렀던 노래에 남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하는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2) 嚴基元, “童詩創作指導小考”, 兒童文藝, 1982. p41

C. 傳來童謠의 形式

1) 傳來童謠의 音樂性

가) 傳來童謠의 리듬

徐丙夏³⁾는 韓國詩는 그 言語의 特質上 外形律 生成의 根幹의 要素를 音數律에 두고 發展해 왔다. 라고 하며 이 音數律은 外形律 生成方法으로서 이어받은 본적이고 傳統的 方法이었다. 라고 했다.

또 동아 원색대백과 사전에서는 傳來童謠는 리듬을 生命으로 하며 전통적인 다른 가요와 같이 4·4조 내지 3·4조의 기본 韻律을 지니면서도 4·4조 리듬이 더욱 철저하다고 했다.

이처럼 전래동요는 리듬을 生命으로 하고 있다.

橫城의 전래동요들도 예외가 아니며 철저히 음수율에 치중하고 있음을 아래표에서 볼 수가 있다.

표8) 傳來童謠의 音數律

(대상편수: 102편)

音數律類型	7.5	7.7	4.4	6.6	6.5	5.5	4.3	5.3	5.4	계
해당편수	13	17	29	13	3	3	2	2	1	83
(%)	15.66	20.48	34.93	15.66	3.61	3.61	2.4	2.4	1.2	100%

3) 徐丙夏, “韓國 童詩의 音樂性에 關한 考察” 1977, 3p

표9) 전래童謠의 리듬

구 분	音數律동요	비音數律동요	계
해당편수	83	20	102
(%)	(81.37)	(19.63)	(100)

위의 결과 분석표 9)를 보면 음수율 동요가 102편중 83편으로 81.37%나 되어 횡성의 전래동요들은 대부분은 음수율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음수율 동요도 부분적으로는 음수율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전래동요가 갖는 음악성을 이곳 전래동요도 그대로 이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음수율 유형을 표8)에서 살펴보면 4·4조 동요가 음수율 동요 83편중 29편이나 되며, 그것을 이어받은 7·5조 7·7조도 13편, 17편이나 되었으며 4·4조 음수율을 이어받은 6·6조도 13편이나 되고 있다.

이처럼 橫城地方의 전래동요는 전통적인 리듬의 음악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 까지 전해지고 있다.

나) 傳來童謠의 反覆律

徐丙夏⁴⁾는 韓國詩歌에 있어서 反覆律은 음수율과 함께 그 外形律 形成의 中樞的 역할을 하여온 하나의 요소였다고 한다.

반복율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네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 「동어, 유어, 동일행, 동일연 반복」 둘째 「동어, 유어, 동일행 반복」 셋째 「동어 유어의 반복」 넷째 「덧구적 방법」이다.

4) 徐丙夏, 상계서, p4

표10) 傳來童謠의 反覆律

항 목	동어, 유어, 동일행, 동일연반복	동어, 유어, 동일행반복	동어, 유어의 반복	덧구적 방법	계
해당편수	13	12	48	26	99
(%)	12.74	11.76	47.05	25.49	97.05

위의 표10)에서 보면 橫城의 傳來童謠는 97%나 되는 동요들이 반복율을 사용하고 있다.

동어·유어의 반복이 그중 48편으로 가장 많이 쓰여졌으며 덧구적 방법의 반복율도 26편이나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복율도 전래동요에 음수를 못지않게, 동요의 음악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傳來童謠의 音聲象徴

音聲象徴⁵⁾ (Sound, symbolism)이 전래동요나 동시에 있어서 外形律의 音樂性 生成에 작용하고 있는 요소는 세가지인데, 첫째가 의성·의태어의 활용 둘째, 모음음절의 插入, 셋째가 행 및 연의 종결음절의 同型的 調節方法인데, 本 研究에서는 전래동요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에 대해서만 알아 보았다.

5) 徐丙夏, 상계서 p8

표11) 의성·의태어 활용

(대상편수: 102편)

항 목	의성어	의태어	의성+의태	합계
해당편수	15	17	2	34
(%)	14.7	16.66	1.9	33.3

위에 제시한 집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橫城의 傳來童謠는 의성어가 活用된 노래가 15편, 의태어가 活用된 노래가 17편, 의성·의태어가 함께 活用된 노래가 2편으로 동요의 동요의 外形律의인 音樂性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D. 傳來童謠의 表現 技巧

1) 傳來童謠의 修辭法

文章 表現에서 가장 中心的인 역할을 하는게 수사법인데 學者에 따라 수사법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으로 나누고 다시 이들 수사법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비유법 7종, 변화법 8종, 강조법 9종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12) 傳來童謠의 修辭法

(단위: 편수)

항 목	비 유 법							계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의인법	의태법	의성법	대유법	
해당편수	5		2	28	17	15	2	69
(%)	4.9		1.9	27.45	16.66	14.7	1.9	67.64

항 목	변 화 법								계
	생략법	설의법	도치법	명령법	덧구법	인용법	반어법	역설법	
해당편수			1	16	12			1	30
(%)			0.9	15.68	11.76			0.9	29.41

항 목	강 조 법								계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점층법	점강법	나열법	미화법	문답법	
해당편수	2	3	39	3		1		21	69
(%)	1.9	2.9	38.23	2.9		0.9		20.58	67.64

위에 제시한 수사법 분석표를 보면, 내재율을 중시하는 詩 쪽에서 많이 쓰이는 수사법이, 외형율의 리듬이 中心이 되는 전래동요에도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먼저 비유법이 橫城의 전래동요에 얼마만큼 쓰였는가 살펴보면 自然현상을 人格化하는 의인법이 28편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래동요가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래동요가 어린이가 주 대상이므로 상상 속에서 동식물 또는 無生物과 대화를 하며 그들에게 生命을 불어 넣는 것이 강한 시기 때문이라 본다.

또한 의성법과 의태법도 많은 童謠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또한 自然과의 친화가 주내용이었던 동요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변화법은 橫城의 전래동요에서 비교적 적게 쓰여졌는데 이는 詩語가 가지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詩쪽에서는 많이 쓰이나, 가락(外形律)에 치중한 전래동요에서는 적게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대신 명령법과 덧구법은 여러 노래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전래동요 자체가 兒童의 생활자체를 별 가식없이 노래로 옮겨 놓은 것이라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이다.

강조법이 橫城의 傳來童謠에서 쓰여진 것을 살펴보면 반복법이 39편 38.23%로 가장 많이 쓰였고, 문답법도 21편 20.58%로 결코 적지않은 노래에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다.

전래동요가 리듬을 살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강조법이 전래동요에 빈도수를 보고 알 수가 있다.

2) 傳來童謠의 노랫말

傳來童謠의 대상은 兒童이고, 그 노래를 부르는 兒童에 맞는 노랫말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전래동요의 노랫말은 아동들에게 충분히 이해 될 수 있고 공감 할 수 있어야 한다.

本 研究者는 橫城에 口傳되는 傳來童謠들의 노랫말을 분석 해보고 兒童들에게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노랫말이 들어있는 동요들을 아래표와 같이 가려 보았다.

표13. 傳來童謠의 노랫말

(해당편수: 102편)

항목	외래어	유행어	한자어	영탄조	난해어	신조어	계
해당편수	5	1	6	2	8		22
(%)	4.9%	0.9%	5.8	1.9	7.8		21.56

위 표13)에는 橫城의 傳來童謠에 쓰인 노랫말 중에서 兒童에게는 이해하기 부적합한 한자어, 난해어, 외래어, 신조어등이 들어있는 동요들을 정리 했는데, 이들 동요들은 요즘 어린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成人들에게서 採集한 것들이었다.

외래어론 「바나나, 에비시디」등의 서양언어와 「구리 구리」「오니」「시브스로」등의 일본말 계통이 대부분이었고, 한자어로는 「울명처당」「객지하전」「금차댕기」「흑발산」「삼선대」「명정대」 등 언뜻 들으면 成人들도 무슨말인지 잘 알 수 없는 말들이 쓰여 졌으며, 「짜바리 호양군」「사리사리 박실하다」「태자관자」「전두만두 두만두」「시상달강」「사리짱」 등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난해어들도 일부 동요에서 쓰여지고 있었다.

이는 傳來童謠가 口傳되는 외세의 영향과, 노랫말의 의미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대로 걸러짐 없이 전승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橫城의 傳來童謠에 나타난 方言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童謠에서 이 지방 특유의 方言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方言들 중에는 현재도 많은 이곳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가하면 「살강」「골제」「노개이」「갈가지」「보물」「북더불」등 요즘 兒童들에게는 생소한 말들이 쓰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통文化 保存의 측면에서, 이지방 특유의 토속어들은 소멸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14)에는 橫城의 傳來童謠 102편에서 가려 낸 이지방 方言의 모음이다.

표14) 傳來童謠에 나타난 方言

차 례	方 言	標 準 語	비 고
1	등강 너머	언덕너머	누에고치실로 짚천
2	맹주	명주	
3	수염	수영(혜엄)	
4	살강	찬장	추수후 으스러진 짚을 싸 놓은곳
5	북더불	짚더미	

차 례	方 言	標 準 語	비 고
6	꾸정물	구정물	
7	갈게	가을에	
8	각재	가재	
9	깨구락지	깨구리	
10	아부지	아버지	
11	짬자리	잠자리	
12	호메이	호미	
13	피기	고기	물고기, 짐승고기를통틀어말함
14	즘심	점심	
15	골재	밭이랑	
16	부강지	부엌아궁이	
17	낭구	나무(木)	
18	노개이	작은술	큰술-지북, 가운데술-평치라부름
19	보물	속껍질	주로과일의 속껍질을말함
20	갈가지	샅팽이	
21	원세이	원숭이	
22	똥고라미	똥그라미	
23	고대로	그대로	

E. 橫城 傳來童謠의 特質

1) 橫城 傳來文化的 背景

그 옛날 辰韓의 마지막 王 太岐가 신라의 박혁거세에게 패해 歷史의 종지부를 찍었던 梅恨의 땅 橫城은 강원도 영서 내륙에 위치한 전통적인 농경 中心의 마을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橫城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의 횃불을 높이들었던 군민의 긍지와, 일제침략기 남쪽에서는 북의 개성과 함께 일본 상인들이 밭을 붙이지 못 했던 유일한 곳으로 애국충절과 옛것에 대한 보수성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보전에 군민들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마침내 1984年 忠州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鼎金里 사람들이 출연한 「회다지 소리」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회다지 소리」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종합예술로, 그속에든 영혼의 소리라 부르는 구성진 소리가 전편을 압도하고 있다.

이처럼 橫城 사람들은 비록 가난한 삶은 누렸지만 그들은 기쁠때나 슬플때나, 情과 恨이 어우러진 노래부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橫城 마을마다, 골마다에는 각종민요와 전래동요가 많이 보전되어 있어, 갈수록 현대문명에 침식해 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옛것에 대한 새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리단위에 민속박물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은 위의 전통文化에 대한 군민의 의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2) 橫城 傳來童謠의 特質

本 研究者가 橫城의 口傳되는 傳來童謠 102편과 신 경림의 「韓國 傳來童謠集」에 수록된 다른 지방 전래동요와 비교 해 본 결과 59편이나 되는 이지방 전래동요는 다른지방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생활을 노래한 동요 14편중, 9편이, 놀이노래 31편중 22편이, 해학요 13편이, 식물요, 노동요, 음식물요는 각각 6편중 전체가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노래들이었다.

이처럼 과반수를 넘는 많은수의 전래동요들이 독특한 형태와 내용을 갖고 오늘날

까지 전해 온다는 것은 앞서 말한 橫城 특유의 전통文化에 대한 보존성과 전통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庶民文學의 전통성과도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것이다.

民謠나 傳來童謠는 어느 한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그 나라 혹은 그 고장 사람들 모두가 만든 행동詩이며 그러기에 이들 作品에는 그들의 가장 절실하고도 보편적인 느낌이 들어있다.

우리의 歷史를 더듬어 보면 착하고 유능한 통치자보다는 용렬하고 무능한 자가 더 많았었다.

이런 통치자 밑에서 일반庶民의 삶이 고달프고 괴로웠으리라는것은 쉽게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곳 橫城 傳來童謠에도 유난히 恨이 만히 눈에 뜨인다.

예를 들면

문배나무 북을 울려 금차댕기 짜느라니
산넘어서 편지가 왔네
시앗 죽었던 편지가 왔네
피기 반찬 쓰던 입이
소금에 밥도 잘도 달다.

—베짜기 노래—

위 노래를 보면 시앗(소실) 때문에 품은 한 女人의 恨이 오뉴월에 서리를 내리기도 남을만 하다.

시앗 때문에 가슴을 앓던 아낙네가 恨으로 베를 짜다 어느날 그토록 미워하던 시앗이 죽었던 소식이 오자 고기반찬을 먹어도 밥맛이 없던 그가, 소금만 짝어 먹어도 밥맛이 달다는 내용의 이 노래는 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닭 숫닭 잡아서
기름이 뚝뚝 뜨는걸
나 한숟가락 안주더라
우리집에 와봐라
수수팔떡 안준다.

-고모네 집-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던 가난했던 어린날, 그때 고기래야 명절아니면 제삿날
얻어 먹는게 고작이었다.

얼마나 고깃국이 먹고 싶었던지 恨이 웅어리진 작은 가슴은 비록 어린애지만, 자
기 생일날 수수팔떡도 안주겠다고 버르고 있다.

이밖에도 동요 곳곳에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은 恨의 울들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조상들을 삶의 지팡이로 삼을줄 아는 지혜를 가졌었다.

예를 들면

남자로 태어나도 부모 있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부모있는데
어찌해서 남자는 공부시키고
어찌해서 여자는 일만 시키나
아버지 어머니 들어보세요.
술담배 먹지말고 푼돈 모아서
돈많은 대학교는 못갈지라도
돈적은 중학교는 보내주세요.

-이하 생략- (공부시켜 주세요)에서

위 노래를 들어보면 향학열에 불타는 애타는 호소가 가슴에 와 닿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정하게 하고있다. 그때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기성세대에 팽배해 있던 때라 여자아이는 웬만한 집 빼놓고는 중학교 진학은 엄두도 못 낼때였다.

그때 이땅에 사는 소녀들은恨을 넘어서 그恨을 풀 매듭에 대한 대처안을 마련해 놓고 노래를 불러 마음의 얘기를 부모에게 표시 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傳來童謠들은 그당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가장 진실되게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얼핏 보기에 童謠가 체념적이고 보수적인듯 보이나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전래동요를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낙천적이고 건강하며 진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恨을 넘어 익살과 해학이 전편에 흐르는 해학요가 불려지게 되는데, 橫城의 傳來童謠들도 뛰어난 해학성이 돋보이는 作品이 많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시골처녀가 논두렁에 앉아서

오줌을 싸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 하는 말씀이

요즘에는 소나기가 왜이리 뜨거워

-시골처녀가-

가진자에게 놀리고, 허릿바를 졸라 매며 허기를 참으면서도 이땅의 서민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먼산을 보고 허허 웃으며 위 노래와 같은 해학요를 부르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또한 가진것 없이 어렵게만 살던 서민들은 그들의 절대적 빈곤(물질과 정신 양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자에게 매달렸다.

이곳 橫城에는 샤머니즘적인 동요가 몇편 전해지는데 대표적인것이 다음의 춘향이 놀이 노래이다.

춘향아 춘향아 남원읍에 성춘향아

나이은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산수 경치 좋은곳에

놀러가자 놀러가자

. 위 노래는 겨울밤 또래또래의 아이들이 사랑방에 모여 앉아 춘향이 혼 실리는 대상자를 방 가운데 앉혀놓고 그 아이에게 춘향이 혼이 실릴때 까지 계속 반복하여 부르는 일종의 巫俗謠라고 할 수 있다.

또 橫城의 傳來童謠에는 노동요도 여러편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傳來童謠의 傳統性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이곳 橫城의 傳來童謠는 남다른 傳統性과 庶民性을 잘 나타나 있으며, 다른 지방 전래동요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다.

Ⅲ. 要約 및 提言

A. 要約

1) 傳來童謠의 採集

약 10년에 걸쳐 本 研究者가 採集한 橫城의 傳來童謠는 모두 102편으로, 成人들 보다는 주대상인 兒童들이 많이 알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兒童들은 주로 놀이, 해학, 인간생활에 대한 노래들은, 成人들은 비교적 歷史가 오래 된 자장요, 해학요, 자연요등을 많이 알고 있었고, 전래동요는 그 시대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노래들이 많이 불리어 지고 있었다.

2) 傳來童謠의 내용

橫城의 傳來童謠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素材는 놀이, 人間生活, 動物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노래의 主題는 놀이의 즐거움, 自然과의 친화, 人間愛가 주로 다루어졌다.

3) 傳來童謠의 形式

採集된 전래동요의 音數律은 전통적 리듬인 4·4조가 主를 이루었고, 그것을 이어 받은 7·5조나 7·7조가 대부분의 전래동요에서 活用됐으며, 반복율도 99편이나 活用된 것이 발견 되었고, 의성·의태어도 34편의 동요에서 사용 돼 이곳 횡성의 전래 동요는 음악성에 치중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4) 傳來童謠의 表現 技巧

수사법에는 비유법과 강조법이 69편의 전래동요에서 쓰여졌고, 변화법의 명령이나 닳구법도 다소 쓰여졌으며, 전래동요의 노랫말중 아동이 이해하기 부적합 한 난해어, 한자어, 외래어도 다소 사용되고 있었으며 횡성지방 특유의 방언도 23편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5) 橫城 傳來童謠의 特質

傳統文化가 타지방에 비해 비교적 잘 계승 돼 오고 있는 橫城은, 이러한 文化的 背景에 힘 입어 전래동요도 타지방과 다른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採集된 102편의 전래동요중 69편이나 되는 많은 수의 전래동요는 다른지방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내용의 노래들이었으며, 橫城의 傳來童謠는 庶民들의 情과 恨이 잘 드러나 있어, 그 당시 이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재조명 해 볼 수가 있었다.

B. 提 言

1) 조상들이 값진 문화유산인 전래동요는, 자칫 소홀히 하면 영영 이땅에서 소멸 돼 버릴지도 모를 이 시점에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다수 참가해, 전래

동요들을 採集, 文書化, 기록화 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겠다.

2) 外來文明에 오염 돼 가고 있는 이땅의 꿈을 잃어버린 兒童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전래동요를 많이 들려주어 조상들의 얼과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도록 해야겠다.

3) 전문가에 의한 전래동요의 文學的, 歷史的 가치가 규명 되어야 겠다.

4) 각급 학교에서는 향토文化 계승의 측면에서 국어시간에 그 지방의 전래동요가 지도 되어야 겠다.

5) 각 지방의 전래동요집이 발간 돼, 향토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해야겠다.

* 參 考 文 獻 *

- 鄭才永, 「故鄉」, 橫城, 聖光社, 1987
- 김정기, 이연승, 정재영, 한창일, 김승기, 「橫城郡誌」, 춘천 강원일보사 1986
- 황석영 외, 「전환기의 민족文學」, 서울, 풀빛 출판사, 1987
- 이 원수, 「兒童文學의 傳統性和 庶民性」, 서울, 한국아동문학가협회, 1974
- 이영희, 이부영, 「전래동요와 문학적 原形의 탐구」, 文學思想社, 1978
- 신경림, 「한국전래동요집」, 창작과 비평사, 1984
- 신현득, 「한국 동요문학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2
- 서병하, 「한국동시의 음악성에 관한 고찰」, 춘천교육대학석우논문집, 17집
- 서병하, 「아동문학비평고」, 춘천교대 석우논문집, 제3집, 1975
- 엄기원, 「童詩 創作 指導小考」, 아동문예, 1982
- 강원도지 편찬위원회, 「江原道誌」, 강원일보사 단기 4292
- 백과사전부, 「동아 세계대백과 사전」, 동아 프라임. 1988
- 한영환, 이성교, 「文學개론」, 開文社, 1985
- 張德順, 「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86
- 李五德, 「兒童時論」, 서울 世宗文化社, 1973
- 孔在東, 「童詩에서의 主題」, 아동문학평론, 1985
- 이재철, 「兒童文學概論」, 서울 書文堂

1989년도 문화사업 현황

1. 제4회 청소년 백일장 개최

- 일 시: 1989. 4. 22. 14시
- 장 소: 황성문화원 강당
- 참가대상: 초·중·고 학생
- 참가인원: 527명
- 시상인원: 1. 초등부 정소현외 31명
2. 중등부 권희순외 12명
3. 고등부 최혜경외 12명 계 55명

2. 제3회 효행학생 표창

- 일 시: 1989. 5. 19. 14시
- 장 소: 황성문화원 강당
- 표창대상: 초·중·고학생
- 후보자수: 17명
- 표창자수: 1. 우천중학교 1~1 김명자
2. 대동여자중학교 3~4 최숙자
3. 황성중학교 2~1 진연덕 계 3명

3. 제8회 청소년 동화대회 개최

- 일 시: 1989. 5. 20. 14시
- 장 소: 황성문화원 강당

- 참가대상: 국민학교 학생
- 참가인원: 15명
- 시상인원: 1. 최우수상 황성국교 3-3 민경진
 2. 우수상 성북국교 3-1 정진
 3. 우등상 공근국교 2-1 김영란
 4. 장려상 공근국교 2-1 이부일
 4. 장려상 광동분교 5-1 김경은

4. 제8회 청소년 사생대회 개최

- 일 시: 1989. 5. 27. 13시
- 장 소: 3.1공원
- 참가대상: 초·중·고학생
- 참가인원: 843명
- 시상인원: 1. 초 등 부 덕고국교 김경석 외 62명
 2. 중 등 부 우천중 한미규 외 13명
 3. 고 등 부 황성여고 박금희 외 4명 계 79명

5.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 일 시: 1989. 5. 27. 17시
- 장 소: 황성군청 강당
- 참가대상: 청소년 학생 및 일반인
- 참가자수: 317명
- 교향악단인원: 50명
- 지휘자: 정원국
- 연주시간: 2시간

6. 사적지 순례행사 실시

- 일 시: 1989. 6. 6. 08~20시
- 순례지: 1. 독립기념관
2. 유관순추모각
3. 현충사
- 참가대상: 문화행사에서 입상한 초·중·고 학생중 희망자
- 참가인원: 45명

7.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

- 일 시: 1989. 8. 7~8. 12(1주간)
- 장 소: 황성문화원 강당
- 참가대상: 초·중·고 학생
- 참가인원: 783명
- 강 사: 김정기, 이연승, 이광호, 한창일
- 강좌내용: 1. 김정기: 경로사상, 효생활과 청소년
2. 이연승: 문학강좌(시, 산문작법)
3. 이광호: 미술강좌(기초이론, 실기지도)
4. 한창일: 향토사강의(고향의 뿌리)
- 교재배부: 1. 경로효친사상 사례집 배부
2. 향토사료집 배부.

8. 읍·면 순회 여성교양 강좌 개최

- 일 시: 1989. 8. 14~8. 17(4일간)
- 장 소: 읍·면회의실, 학교교실
- 참가대상: 새마을 부녀회원
- 참가인원: 278명

- 강 사: 김정기, 한창일
- 강좌내용: 1. 김정기: 건전가정 육성방안
2. 한창일: 효생활과 자녀교육
- 교재배부: 경로효친사상 사례집

9. 제9회 태풍 문화제 개최

- 일 시: 1989. 9. 28. 10시
- 장 소: 황성문화원 강당 및 시내 일원과 공설운동장
- 참가대상: 황성군민
- 참가인원: 3,000명
- 행사내용
 - 1. 문화행사: 향토문화상 시상, 미술전시회 개최
운곡선생 유적 탁본전 개최
군민노래자랑 개최, 농악경연대회 개최
기타
 - 2. 체육행사: 육상, 축구, 탁구, 씨름, 궁도, 테니스

10. 청소년 실내악 발표회 개최

- 일 시: 1989. 10. 28. 17시
- 장 소: 황성군청 강당
- 참가대상: 중·고 학생
- 참가인원: 300명
- 실내악단인원: 50명
- 지 휘 자: 정원국
- 연주시간: 2시간

부 록

— 횡성의 전래동요 —



채집및 정리: 정 재 영

인간생활 노래 (생활요)

고모네 집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닭 수닭 잡아서
기름이 뚝뚝 뜨는걸
나 한순가락 안주더라
우리집에 와봐라
수수팥떡 안준다.

사랑하는 아줌마

사랑하는 아줌마
양단치마 사세요
안삽니다. 안 사
내일 모레 오세요.

동무동무 새동무

동무동무 새동무
보리밭에 똥싸자.



사랑하는 언니야

사랑하는 언니야
시집가서 잘살아
아들낳고 딸낳고
봄이되면 찾아와

엄마엄마 나죽거든

엄마엄마 나 죽거든 양지쪽에 물어주
뒷산에다 묻지말고 앞산에다 물어주오
비가오면 덮어주고 눈이 오면 쓸어주오
내친구가 찾아오면 학교갔다 전해주

엄마 생각

등강너머 콩밭에간 엄마찾을때
누나하고 저녁밥 지어놓고서
들어가신 어머니 생각합니다.

쫓겨가는 며느리

쫓겨가는 며느리
아들낳고 딸낳고
미역국은 좋대지
소태국은 싫대지

꼬마 신랑

옛날옛적에 꼬마신랑이 각
시방에서 울었답니다.
서방님 서방님 울지마세요
널 아침 누룽지 굶어드릴게



사촌 형님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땠디까.
맹주치마 열두폭이
눈물씻겨다나갔네

우리 엄마

씨나씨나일씨나야
니네엄마어디갔니
우리엄마배타고
압록강에 놀러갔다.

동 무

동무 동무 시브스로 그린동무
옥색으로 새긴 동무
연못안에 연꽃은
여러가지 성할려라
울명처당 달뜨거든
객지하전 만나보세

돌아가신 엄마

다복 다복 다복네야 이삭머리 쫑쫑 땀고
너어디로 울며가니
니 어머니 몸 둔곳에
젓먹으러 나는 가오.
물이깊어 못간단다 산이 높아 못간단다
물깊으면 수염치고 산높으면 기어가지
가지말라 가지마라 가지줄게 가지마라
떡사줄게 가지마라 떡도싫고 엿도싫고
내어머니 젓만주소
살강아래 삶은팍이 싹이나야 오마더라
북더불에 있는 차들 물러야만 오마더라
병풍속에 그린닭이 꿩을 쳐야 오마더라
술방울이 울어야만 내어머니 오마더라
애고 애고 내어머니 삼선대와 명정대가
남산끝에 굽이굽이
잘도 잘도 돌아가네



어깨 동무

어깨동무 찌개동무 제사집에 가는 동무
한잔주면 눈물나고 두잔주면 웃음난다.
어깨동무 개동무 미나리 반찬 개반찬



자연의 노래 (자연요)

비야 비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사촌언니 시집갈
때
가마꼭지 물들인다 가마꼭지 물들이면
초록저고리 얼룩지고 비단치마 아롱진
다.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노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토끼로 찍어내고 금또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샘 물

꾸정물은 나가고 샘물은 들어가라 튼

해야 해야

해야 해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밥말아 먹고
장구치고 나오너라



새 노래 (동물요)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헌이 주께 새이다오

따운 따운 참새야

따운 따운 참새야 너 어디 가니
우리엄마 산소에 젖먹으로 갈테야
신발없어 못간다 신없으면 맨발로 가지
물이깊어 못간다 물깊으면 헤엄쳐 가지
산높아서 못간다 산높으면 기어가지

티 꺼내기 노래

까치야 까치야
니네 새끼 물에 빠진거 건져줄께
내눈에 티 들어간거 끄내다와 튼

황새야 독새야

황새야 독새야
느집이 불났다.
쪽박갔다 불꺼라 워워이

떡해먹자 부엉

떡해먹자 부엉 양식없다 부엉
걱정말게 부엉 꺾다먹지 부엉
언제갚지 부엉 갈게갚지 부엉

피꿀냉 피꿀냉

피꿀냉 피꿀냉 경상도 박개여
전라감사 딸이여 피꿀냉 피꿀냉

핑핑 핑서방

핑핑 핑서방 자네집이 어딘가
거미줄 밟
뭘먹고 사나?
머루 다래 따먹다 불알이 굵혀뻘었다.
언제가 장산가 내일 모레 이렛날



짐승과 물고기 노래 (동물요)



가재와 개구리

가재 개구락지 모두모여 음악회를 열었다.
다.

각재는 춤추고 개구락진 말놀이
니나니나 니나니나 임금님 소원이다.

쥐야 쥐야

쥐야 어디서 잤니?

부엌에서 잤다.

뭘 비고 잤니?

주걱비고 잤다.

뭘 덮고 잤니?

행주 덮고 잤다.

녕녕 너구리아

녕녕 너구리아 왜우니

바람도 안부는데 왜 우니

그것을 보고 있던 작은 아버지

배꼽을 움켜쥐고 하하하

꿀 돼 지

돼지 돼지 꿀돼지

무얼 먹고 사니?

친구집에 찾아가 찌꺼기 먹고 산다.

아가리 딱 딱 벌려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두 겹 아

두겹아 두겹아
혼집 주께 새집 다와

두겹아 두겹아

두겹아 두겹아
너는 너는 무얼 먹고 사니?
감자 범벅만 먹고 산다.



◆ 황성의 전래동요 ◆

벌레와 곤충의 노래 (동물요)



알낱아라 뽕뽕

알 낱아라 뽕뽕

알 낱아라 뽕뽕

짬자리통 파리통

짬자리통 파리통

앉을자리 말아라

아침방아 썬라

아침방아 썬라

저녁방아 썬라

짬자리 꿈자리

짬자리 꿈자리

저리가면 죽는다

이리오면 산다

고기고기 앉아라

잡을테면 잡아봐라

일 노래 (노동요)

나무하러 가세

김서방 나무하러 가세
배가 아려서 못가
무슨배? 자라배
무슨 자라? 엄자라
무슨엄? 소엄
무슨소? 탁소
무슨탁? 비지탁
무슨비지? 콩비지

베짜기 노래

문배나무 북을 울려 금차댕기 짜느라니
산넘어서 편지왔네
시앗죽었던 편지가왔네
피기반찬 쓰던입이 소금에 밥도 잘도 달
다.

호미질 노래

말갈레갈은 은가락지 찌던손에
호메이 자루 웬말인가



시집살이 노래

작은애기 줌심해라
무삼쌀로 하라는가?
외비찰쌀로 하라므나
무슨간을 하라는가?
우리오빠 낚은피기 작은피기 지져놓고
굵은피기 구어놓고

소몰이 노래

이러디여 이러디여
마라소야 들어서라 올라서지를 말구
안소 우겨서라 마라소 우겨서라
어디여 들어서라 안소 물러서라
이러디여 이러디여

소몰이 소리

이러디여 이러디여
꿀계로 들어서라
어디여 들어서라
이러디여 이러디여



나무, 풀, 꽃의 노래 (식물요)

가랑잎 떠벌떠벌

가랑잎 떠벌 떠벌 어디로 가느냐
넓고 넓은 바다로 흘러가느냐
높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느냐

할미꽃 할머니

할미꽃 할머니 고개숙이고
오늘도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고개넘어 시집간 막내딸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궁금하대요.

가랑잎 때굴 때굴

가랑잎 때굴 때굴 어디로 굴러가요
벌거벗은 이몸이 춥고 추워서
따뜻한 부강지를 찾아갑니다.

장다리는 한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라.



때굴 때굴

때굴 때굴 때때굴 도토리 하나
도토리를 먹으면 약이 된다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장미꽃을 사세요
냄새 좋고 향기로운
장미꽃을 사세요.



놀이 노래 (오락요)



뻥데기 노래

뻥데기 뻥데기 뻥뻥 데기 데기
뻥데기 일 (주먹)
뻥데기 이 (가위)
뻥데기 삼 (보)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미니 미니 미니 빵

췌췌췌 미니미니 미니빵(주먹 내기)
가야스로 갈까요(가위)
우리 우리 우리는(보)
주먹빵(주먹) 가위빵(가위)
보재기빵(보) 유리 항아리

개미삼촌

개미삼촌 어디가?
넷가에 간다. 나도가
아이들이 많아서 못간다.

우리집에 왜왔니

우리집에 왜왔니 왜왔니 왜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 ○○)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강통에 보리밥은

강통에 보리밥은 누가 먹었나
니가 먹고 내가 먹고 싸우지 말자
소리가 난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뽕

감자에 싹이 나고

감자에 싹이나고 잎이나서 목 찌 빠

강강 술래야

강강 술래야 누구 먼침 봤니
순이 먼치 봤다.



달려라 기차

달려라 기차 칙칙 퍽퍽
증기 기차 쏜살같이 달린다.
랄랄랄라 칙칙 랄랄랄라 퍽퍽
이기차는 쏜살같이 달린다.

때굴 때굴 땡 때굴

때굴 때굴 땡때굴 도토리 하나
삼년만에 이빠졌다 대머리 까졌다.
갈바람 솔바람 불어오는데
술레잡기 하는것이 재밌습니다.

똥똥 말아라

똥똥 말아라 명석같이 말아라

딱딱 붙어라

딱딱 붙어라
내일 모레 떡해 줄게



도레미파 빵

도레미파 빵
냄새가 난다 빵
누가 찢나 빵
자네가 찢지 빵

췌췌췌

췌췌췌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우리선생 계실적에 엽서한장 써주세요
구리구리 멧텅구리

똥고라미 똥고라미

똥고라미 똥고라미
마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서
엄마랑 아빠랑 멀리간다
육육에 육육에 삼십육 맞고
육육에 육육에 백두산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불러서 불러서 잘가거라.



여우야 여우야

한고개 넘어서 두고개 넘어서
여우야 여우야 나와 놀자
세수하는 중이다
멋쟁이 아니냐
밥 먹는 중이다.
무슨반찬?
개구리와 뱀
죽었니 살았니

엄마 밥이 더 많니

엄마밥이 더 많니
아부지 밥이 더 많니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전두만두 두만두 짹바리 호양군
열두탕기 열두냥 종지머리가 사리짱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오니야 너 어디 가니?
저 건너
뭘 하러
배 따 먹으러
나 줌 줘?
싫어
에이 잘 가거라.



때때 말러라

때때 말러라 장작 같이 말러라

자동차 놀이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 바퀴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조수
달러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운전수 아저씨 고맙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은

여보 여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는 복숭아 딸이랍니다.
어째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는 나는 언니하고 놀러왔지요.
세 바퀴 돌고서 인사하세요.

멤돌기 노래

팽글 팽글 잘두 돈다
요리조리 잘두 돈다
고추 먹고 멤멤
담배 먹고 멤멤



공치기 노래

우리집 옆집 도둑 팽이가
연지 끈지 바르고 눈썹 그리고
반지가 없어서 사러 갈적에
사람이 많으니 얼른 감춰라

꼭 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살금살금 달아나자
빨리 빨리 달아나자

춘향이 놀이

춘향아 춘향아 남원읍에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경치 좋고 산 좋은데 놀러가자 놀러가자

대문놀이 노래

어디 군사인가? 강원도 군사라네
몇천명인가? 삼천명일세
몇바퀴 돌았나? 삼백바퀴 돌았네
무슨 칼을 찾나? 장도칼을 찾네
무슨 신을 신었나? 가족신을 신었네
어디로 들어 가는가? 동대문으로 들어가
네



수박따기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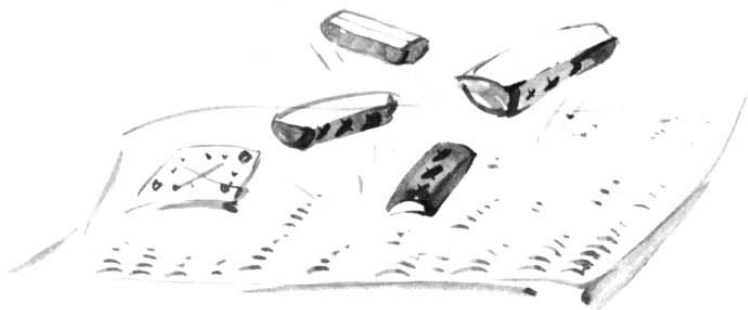
1. 할멈 문 열어주
왜 그러우
수박 따러 왔오
아직 덜 익었수 내일 모레 오슈
2. 할멈 문 열어주
꼴라 보슈
홍 이건 덜 익었군
이건 단내가 나네
어 그놈 잘 익었구나
어디 참기름좀 발라보자
3. 할멈 문 열어주
왜 그러우
수박 따러 왔수
어제 가져간 수박은 어쨌수
아 글썽 쥐도 새도 모르게 다락에 갇
춰두었더니
쥐란 놈이 다 갇아 먹었구료.

방멩이 점 노래

천둥 지둥 하신다
태자 판자 오신다.

웃놀이 노래

흑발산이 산밑에 가고
석동문이 막돌아간다.
웃이야 사치얏 오금에 떡이나
동장가 사리시리 박실하다.



놀림과 익살의 노래 (해학, 풍자요)



울베이 짚베이

울베이 짚베이
닭에 똥에 밥 말아 먹어라

친구들

부랄없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뒷산에 낭구하러 올라 갔다가
쇠똥에 미끄러져서
아이구 불알아 아이구 부랄아

고바우 영감이

고바우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발랐더니
고대로 났더래

순이 아버지

순이 아버지
담배꼭지에 불이 붙어서
으야차차 으야차차 큰일났구나

시골처녀가

시골처녀가 논두렁에 앉아서
오즘을 싸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 하는 말씀이
요즘에는 소나기가 웨이리 뜨거워

원세이 똥구멍은

원세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빨른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건 백두산

옛장사 똥구멍은

옛장사 똥구멍은 전덕 전덕
그래도 좋다고 찢렁 찢렁

앞니 빠진 갈가지

앞니 빠진 갈가지
우물가에 가지마라
수돗 한테 쪼일라
(붕어 새끼 놀랄라)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렁지
벽벽 끊어서
개죽통에 담아서
훈장님께 드리자.

밀가루 반죽

중국사람 미국사람
밀가루 반죽 좋아해

에비시디 강낭콩

에비시디 강낭콩
옆집 할아버지 부랄통
한번 만지면 딱딱해
두번 만지면 물렁해
세번 만지면 툭 터져

까 까 중

중중 까까중
얼마주고 깎았니
1전 주고 깎았다.

일러라 쥘러라

일러라 쥘러라 일러라 쥘러라
느 할애비 콧구멍
바늘로 콕 콕 쥘러라



자장가 및 아기 달래는 노래 (자장요)

엄마 꿈

새는 새는 낭구에 자고
쥐는 쥐는 굴에 자고
어제온 색시는 사랑품에 잠을 자고
우리 아가 예쁜 아가 엄마품에 잠을 잔
다.

자장 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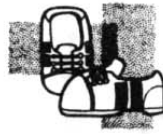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긴 잘두 자고
남에 애긴 못두 잔다.

시상 달강

시상 달강 시상 달강
할아버지 마당살다 동전 한푼 주워서
밤한말을 사가지고 통노개에 삶아서
아빠진 조리로 건져서 고무다락에 치
트렸더니
머리 까만 새양쥐가 들락날락 다 파먹
고
밤한톨을 냉긴걸 까가지고
깍대기는 할아버지 드리고 보물은 할
머니 드리고
알맹이는 너랑 나랑 둘이먹자 둘이먹
자
시상 달강 시상 달강

등개 등개야

등개 등개 등개야
먹으나 굶으나 등개야
입으나 벗으나 등개야



음식의 노래 (생활요)



만약에 인절미가

만약에 인절미가 시집을 간다면
콩가루에 화장을 하고
빨간 쟁반위에 올라 앉아서
간다네 간다네 예식장으로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아빠야 뒷집에 돼지고기 삶더라
좀 주더냐?
맛 있더냐?
쿨쿨 냄새만 나더라

쌈 먹고

쌈먹고 쌈먹고 쌈삼먹고
너먹고 나먹고 옆집주고 뒷집주고
구리 구리 쌈쌈
우물가에 빠진 개미 한마리

새 볶아먹기 노래

오빠초빠 어디로가?
산에 간다
새 잡으러
몇마리 잡았니?
다섯마리 잡았다.
나 한마리 쥐
볶아먹고 지저먹고 다먹었다.

장난감 기차요

장난감 기차요 장난감 기차요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아기 갖다주려 갑니
다.

형님 상

뒷집 목기 뒷집목기 닷죽 닷죽 달다죽이
형님상에 다올랐네
뒷집대접 앞집대접 닷죽 닷죽 열닷죽이
형님상에 다올랐네
머리맡에 장끼한마리 꺼덕꺼덕 푸득푸득
다날아갔네

공부시켜 주세요

남자로 태어나도 부모있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부모있는데
어찌해서 남자는 공부시키고
어찌해서 여자는 일만 시키나
아버지 아버지 들어보세요
술과 담배 먹지말고 푼돈 모아서
돈많은 대학교는 못갈지라도
돈적은 중학교는 보내주세요
까만치마 흰저고리 책보를 끼고
저기가는 저학생 나는 부러워
나는 부러워



임 원 명 부

번호	직 위	성 명	주소 및 직장	전화번호	참석여부	비 고
1	원 장	한 중 회	한치과 의원	43-2579, 2674		
2	부원장	김 정 기	횡성읍 마산리	43-4360		
3	이 사	이관술	횡성읍 읍하리	43-3344		
4	"	박충원	횡성주류합동	43-3221, 3323		
5	"	조경택	읍상리	43-2742		일미식당
6	"	김상원	읍상리	43-2796		대현석유
7	"	김명수	읍상리	43-2549		
8	"	이종성	공근면 학담리	42-3225		
9	"	박순갑	둔내면 자포곡리	42-1024		
10	"	민인기	두산농산(곡교리)	43-3396, 2562		
11	"	권용환	대동여중(읍상리)	43-2632		
12	"	유장희	횡성여고(읍상리)	43-2009, 2352		
13	"	이병현	서원국교(입석리)	43-2874		
14	"	정재영	청일국교(읍하리)	42-5553, 43-3326		
15	"	도회관	읍하리	43-2376		은영가구
16	"	홍재욱	횡성가축병원	43-2246		
17	"	이상천	설악탕(읍하리)	43-2607		
18	"	김정웅	읍상리	43-2707		김약국
19	감 사	함소훈	함한약방(읍상리)	43-2636		
20	"	정두영	서원사(읍하리)	43-2404		

* 편 집 후 기 *

6권째 책을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작년부터 서둘렀으나 필자들의 원고가 늦어졌을뿐 아니라分量도 적다.

이번에는 출판사도 강원도내에서 시설이 가장 좋고 예쁘게 冊을 만들수 있다는 江原日報社 출판부에 맡기려 했다.

江原道中에서도 郡勢가 中間쯤 밖에 안되며 文化院 資源이 弱한 橫城文化院이 그래도 6號의 文藝誌를 내면서 조금은 긍지를 가져도 본다.

그러면서 우리 郡에도 大學이 있었으면 地方文化 發展에 얼마나 좋을까?

아니 專門大만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해 보지만 소용없다.

우리가 地方文化를 啓發하고 더욱 發展시키기란 여간 어려운것 같지 않다.

“於斯買”란 옛 橫城 마을의 첫 이름이라 생각하니 더욱 소중히 더욱 예쁘게 아름답게 冊을 잘 만들고 싶은 소망이 인다. 來년에는 조금더 훌륭하고 알찬 冊이 될수 있게 鄉土愛 있는 筆者들의 玉稿를 當付 드리면서…….

편집위원 일동



인쇄일자	1989.	12.	5
발행일	1989.	12.	29
발행인	횡성문화원장		
편집	문화원 어사매 편집실		
인쇄	강원일보사 출판국		

비매품

横城文化院